제15차 (201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WWW.kli.re.kr

이상호 · 성재민 · 신선옥 · 이지은
윤미례 · 이혜정 · 박 진

KLI
한국노동연구원

제15차(201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이상호 · 성재민 · 신선옥 · 이지은
윤미례 · 이혜정 · 박 진

목 차

제1장 머리말 ·····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의 개요 ····· 10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 10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 12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 14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 14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 19
제4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 21
1. 응답 가구의 특성 ····· 21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 23
제5절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 25
1.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 25
2. 비성공가구의 특성 ····· 27
3. 신규 조사자의 특성 ····· 29
제6절 통합표본 자료의 특성 ····· 31
1. 통합표본의 개요 ····· 31
2. 통합표본유지율의 개요 ····· 33
3. 응답 가구의 특성 ····· 35
4.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 37
5. 비성공가구의 특성 ····· 38
6. 신규 조사자의 특성 ····· 39

제3장 조사 가구의 특성 ····· 42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 42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 47
1. 가구주의 특성 ····· 47
2. 가구원의 특성 ····· 49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 51

제4장 가계경제 ····· 55

제1절 가구소득 ····· 56
1. 가구의 총소득 ····· 57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58
제2절 가구지출 ····· 59
1. 생활비 ····· 60
2. 저 축 ····· 63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 64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 66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 67
2. 주택의 종류 ····· 70
제4절 자산 및 부채 ····· 71
1. 부동산자산 ····· 72
2. 금융자산 ····· 74
3. 가구의 부채 ····· 76
제5절 자녀 교육비 ····· 77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 80

제1절 경제활동상태 ····· 80
제2절 취업자의 특성 ····· 84
제3절 미취업자 ····· 90
1. 구직활동 ····· 90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 93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 95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 96
제2절 근로시간 ····· 100
1. 평균 근로시간 ····· 100
2. 초과근로시간 ····· 104
제3절 임 금 ····· 105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 105
2. 월평균 임금 ····· 108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 112
1. 비정규직의 규모 ····· 113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115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117

제1절 종사상 지위 ····· 118
제2절 근로시간 ····· 121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 121
2. 주당 근로시간 ····· 123
제3절 근로소득 ····· 126
제4절 사업체의 창업 ····· 130

제8장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 132

표 목 차

<표 2- 1> 1~15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 11
<표 2- 2> 1~1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 12
<표 2- 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 14
<표 2- 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 16
<표 2- 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 17
<표 2- 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 18
<표 2- 7> 시기별 조사진행률 추이 ····· 19
<표 2- 8>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 21
<표 2- 9> 1~15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 22
<표 2-10> 1~15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 23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 25
<표 2-12>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 ····· 26
<표 2-13> 1~15차년도 비성공 사유 ····· 27
<표 2-14> 각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 ····· 28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 29
<표 2-16> 신규 조사자의 구성 ····· 31
<표 2-17> 1~4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통합표본) ····· 33
<표 2-18>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통합표본) ····· 34
<표 2-19>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통합표본) ····· 34
<표 2-20>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통합표본) ····· 35
<표 2-21> 1~4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통합표본) ····· 35
<표 2-22> 1~4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
(15세 이상, 통합표본) ····· 36
<표 2-23> 이사가구의 분포(통합표본) ····· 38
<표 2-2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통합표본) ····· 38

<표 2-25> 1~4차년도 비성공 사유(통합표본) ····· 39
<표 2-26> 각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통합표본) ····· 39
<표 2-27>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통합표본) ····· 40
<표 2-28> 신규 조사자의 구성(통합표본) ····· 41

<표 3- 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 ····· 43
<표 3- 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 45
<표 3- 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 46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혼인상태별·연령별·
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 48
<표 3- 5> 1~15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50
<표 3- 6> 2~15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 52
<표 3- 7> 2~15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 53
<표 3- 8> 2~15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 ····· 54

<표 4- 1> 연도별 가구의 총소득 ····· 58
<표 4- 2> 15차년도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 58
<표 4- 3> 2~15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 61
<표 4- 4> 15차년도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 62
<표 4- 5> 2~15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 63
<표 4- 6> 15차년도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 65
<표 4- 7> 15차년도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 66
<표 4- 8> 2~15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 68
<표 4- 9> 2~15차년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 70
<표 4-11>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 72
<표 4-12>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 74
<표 4-13> 부채 잔액 분포 ····· 77
<표 4-14> 15차년도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 78
<표 4-15> 15차년도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 79

<표 5- 1> 1~15차년도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 ····· 81
<표 5- 2> 1~15차년도 경제활동상태 비교 ····· 82
<표 5- 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2년) ····· 85
<표 5- 4>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2년) ····· 86
<표 5- 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2년) ····· 87
<표 5- 6> 경활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2년) ····· 88
<표 5- 7> 15차년도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 89
<표 5- 8> 15차년도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 90
<표 5- 9> 15차년도 특성별 구직방법 ····· 92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 ····· 94

<표 6- 1>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 ····· 96
<표 6- 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2012년) ····· 99
<표 6- 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01
<표 6- 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2년) ····· 102
<표 6-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2년) ····· 102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2년) ····· 103
<표 6- 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2012년) ····· 105
<표 6- 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2012년) ····· 106
<표 6- 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2012년) ····· 107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 ····· 108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2012년) ····· 110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2012년) ····· 110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2012년) ····· 111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2012년) ····· 113

<표 7-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18
<표 7- 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 119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 ····· 120
<표 7-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2012년) ····· 122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24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012년) ····· 125
<표 7- 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009년) ····· 126
<표 7- 8> 월평균 소득 비교 ····· 127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2012년) ····· 128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2012년) ····· 129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2012년) ····· 130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2012년) ····· 130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2012년) ····· 131

<표 8- 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133
<표 8- 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 134
<표 8- 3>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 136
<표 8- 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 138

그림목차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 ····· 24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 30
[그림 2-3] 통합표본의 개요 ····· 32
[그림 2-4]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통합표본) ··· 37
[그림 2-5]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통합표본) ····· 40

[그림 3-1] 15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 46

[그림 4-1] 15차년도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 59
[그림 4-2] 15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 64
[그림 4-3] 15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 68
[그림 4-4] 15차년도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의 임대보증금 ····· 69
[그림 4-5] 15차년도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 69
[그림 4-6] 15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 73
[그림 4-7] 2~15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 금액 추이 ····· 75

[그림 5-1] 최근 7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2006~12년) ····· 83
[그림 5-2] 최근 7년간 실업률 비교(2006~12년) ····· 84
[그림 5-3] 15차년도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 91
[그림 5-4]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 93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2012년) ····· 97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2012년) ····· 98
[그림 6-3]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2012년) ····· 114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2년) ····· 115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23

제 1 장

머리말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제15차 조사의 과정 및 조사 진행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KLIPS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IPS는 단편적인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micro data)들을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2년에 제15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제15차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체 예산 투입 및 외부기관의 투자로 실시되었다. 이 보고서는 제15차년도의 조사 과정과 현장 실사 결과를 서술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변수에 대해 이전 차수들과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표본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사활은 무엇보다도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적으로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지난 제11차 조사에서 원표본인 5,000가구의 74.2%를 조사하여 높은 표본유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제15차 조사는 원표본가구 가운데 3,517가구를

* 본 연구는 노동패널팀의 이상호(제1장), 이상호・이지은・박진(제2장), 이혜정(제3장, 제4장), 신선옥(제5장), 윤미례(제6장, 제7장), 그리고 성재민(제8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70.3%의 원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PSID, GSOEP, BHPS 등을 비롯한 외국의 유수한 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과 유사한 정도이다.

제15차 조사도 지난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패널팀은 조사원 교육과 CAPI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사원들의 노동패널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노동패널팀 팀원들은 조사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노동패널이라는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는 있으나 분석기법상의 한계로 인해 자료에 들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그리고 엄밀하게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KLIPS는 학술대회에서 특별분과를 마련하여 패널자료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성황리에 개최된 강연은 난해하던 패널자료 분석기법들을 국내에서 일반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연 자료는 노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LIPS 자료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보다 우수한 패널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더욱 엄밀하고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KLIPS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제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언들이 다시 KLIPS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KLIPS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하고 보충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미 지난 보고서들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FAQ는 노동패널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팀에 접수되는 질문들 가운데 빈도가 높은 질문들

을 29개로 추려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를 사용자 지침(User's Guide)에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SAS와 SPSS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STATA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STATA 버전의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FAQ는 그동안 자료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는 FAQ의 문항을 더욱 늘리고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 역시 홈페이지에 올려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자료 사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문의는 앞으로도 FAQ를 더욱 확충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노동패널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관련 내용들에 대한 소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이제 KLIPS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KLIPS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KLIPS의 설문과 유사하다. 제2장은 제15차 조사에 대해 개관하고 있고,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각각 조사 가구의 특성과 가계경제에 대해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조사된 가구들의 특성들을 살펴본다.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을 분석하여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본다. 제5장부터 제7장은 가구원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5장은 개별 가구원, 즉 개별 경제 주체

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한다.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개별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8장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동학(dynamics)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있어 동태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

또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15차년도 패널조사의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 표본유지율, 응답가구와 가구원 특성,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등과 같은 전반적인 조사 개요를 다루고 있다. 15차년도 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원표본 3,517가구 및 분가한 1,952가구를 합하여 총 5,469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다.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444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122명,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이 322명이다.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유지율은 70.3%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하였다.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15차년도 4,770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73.7%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과 동일한 수치이다. 따라서 4차년도 이후 노동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은 가구 소멸로 인한 자연 감소를 제외하고는 표본 감소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사의 질적 측면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응답자 중 본인 응답 비율은 94.5%로 나타났다. 원가구 대비 1~15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의 비율은 30.9%이고, 원표본(13,864명)가구원 대비 계속응답 개인의 비율은 37.4%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성공 가구의 비성공 사유로는 '강력 거절'이 41.3%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조사에 성공한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지난 15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우선 15차년도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 수는 2.8인이며, 4인 가구의 비중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가구주와 가구주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5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의 비중은 22.2%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남성이 77.9%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3.3세로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구주의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5세 이상 전체 개인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51.1%로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평균 연령은 45.9세로 역시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및 고졸 미만 학력 소지자가 각각 26.5%와 2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1~15차년도 기간 동안 출생한 가구원은 총 2,799명으로 남자 아이가 1,470명(52.5%), 여자 아이가 1,328명(4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의 사망자는 73명이었고,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5.8세였다.

제4장은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다. 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15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가구의 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또 9차년도부터 대폭 설문이 보강된,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며, 가구의 자산과 부채의 특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연도별로 가구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15차년도 연간 총소득은 4,153만 원(월평균 346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1만 원 늘어났으나,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14차년도에 비해 약 19만 원 정도 감소하였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9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비

의 증가폭은 4차년도에서 5차년도에 대폭 상승해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5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3.3%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56만 8천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9차년도에 설문이 대폭 강화된,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2.8%였고,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71.1%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78.2%, 78.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26.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제적 교류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5차년도 패널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2.5%로 전년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의 시가총액은 1~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15차년도 63.7%로 지난 14년 동안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7차년도와 11차년도를 제외하고는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5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2,21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4.5%를 차지하였다. 부채잔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15차년도에는 4,511만 1천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및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5%였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자녀 수가 2명인 경우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5.9%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7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

는 월평균 56만 1천 원(자녀당 교육비는 35만 7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251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연평균 986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1]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 2012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통계청 60.5% 대비 노동패널 58.4%로 낮게 나타났지만, 1998년 이후 추이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자료는 가구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상태 분류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조사 대상 기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20%가 약간 넘는 탈락률에도 불구하고 KLIPS가 비농가 부문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15차년도에는 전체 4,599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으며,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71.6%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비중이 29.6%로 가장 높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7.5%로 가장 높으며,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이 31.5%, 직종별로

1)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는 생산직이 3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차년도 52.3시간에서 점차 감소하여 15차년도(2012년) 기준 45.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비하여 약 5시간가량 길었으나,[2]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7.1시간)이 여성(42.4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5.8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또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5차년도에 26.0%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9시간으로 나타났다.

임금 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5.3%는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받는다'와 '매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1.4%, 2.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산정방식별로도 월급제가 77.3%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 그쳤다.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에서 156.7만 원이었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10차년도에는 211.0만 원에 달하였으나 12차년도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회복하여 15차년도에는 209.1만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5차년도에 여성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60만 1천 원으로 남성의 59.2%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에 월평균 임금이 321만 8천 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200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389만 6천 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282만 7천 원)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는 외국인 회사(360만 6천 원)가, 종업원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기업(341만 6천 원)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7장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15

2) 2012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5인 이상 비농전산업 주당 총근로시간은 41.4시간으로 나타났다(「KLI 노동통계」 재인용).

차년도의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1,929명이었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5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5.0%, 자영업자 57.1%,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7.9%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15차년도 주당 근로일수는 5.8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0.6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0차년도 54.3시간 이후 꾸준히 감소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지난 15년간 월평균 명목소득은 1차년도 131만 6천 원에서 2차년도에 129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15차년도에는 29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창업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선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44명이었다. 창업 주체와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8.0%)보다는 본인 스스로 창업한 경우(88.0%)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게 된 응답자에게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 대상자의 81.1%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제8장은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패널자료란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자료이므로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시간에 걸쳐 동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패널자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실시한 분석이 제8장의 분석이다. 노동시장 전체로 보아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간의 이동을 먼저 분석한 뒤,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들의 이동경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14차와 15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동태적 분석뿐 아니라 제13차와 14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분석도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하였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의 개요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3)]

1998년에 표집된 가구를 기준으로 KLIPS의 진행 상황을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3,321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각각 87.6%, 80.9%에 그쳤다. 이 당시 아직 한국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년도 이후 패널유지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심지어 6차년도의 경우 패널유지율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기도 하였다.

3)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 33601).

2012년에 실시된 제15차 KLIPS 조사에서는 원표본 3,517가구 및 분가한 1,952가구를 합하여 총 5,469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가구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70.3%로 전년도에 비하여 0.3%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총 11,444명이다.

〈표 2-1〉 1~15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조사대상 원가구-소멸가구	조사성공 가구 수[1]	원표본 가구 수[2]	원표본 유지율[3]	유효표본 유지율[4]	분가 가구 수	가구원 응답자 수[5]	실사 기간
1차('98)	5,000	5,000	5,000	100.0	100.0	-	13,321	6~10월
2차('99)	5,000	4,508	4,378	87.6	87.6	130	12,037	7~12월
3차('00)	5,000	4,266	4,044	80.9	80.9	222	11,205	5~10월
4차('01)	5,000	4,248	3,866	77.3	77.3	382	11,051	5~10월
5차('02)	5,000	4,298	3,798	76.0	76.0	500	10,966	4~ 9월
6차('03)	4,993	4,592	3,862	77.2	77.3	730	11,541	4~ 9월
7차('04)	4,950	4,762	3,863	77.3	78.0	899	11,661	4~ 9월
8차('05)	4,935	4,849	3,822	76.4	77.4	1,027	11,580	4~10월
9차('06)	4,926	5,001	3,820	76.4	77.5	1,181	11,756	4~10월
10차('07)	4,899	5,069	3,775	75.5	77.1	1,294	11,855	4~10월
11차('08)	4,862	5,116	3,709	74.2	76.3	1,407	11,734	4~10월
12차('09)	4,832	5,306	3,657	73.1	75.7	1,649	11,739	4~10월
13차('10)	4,802	5,379	3,606	72.1	75.1	1,773	11,582	7~12월
14차('11)	4,786	5,403	3,528	70.6	73.7	1,875	11,377	7~12월
15차('12)	4,770	5,469	3,517	70.3	73.7	1,952	11,444	6~12월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 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는 10차년도 release 버전 자료부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각각의 연도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졌던 설문지의 종류와 자료 및 변수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종단면 일치성(longitudinal consistency)을 갖도록 하였다. 개편된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서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용 자료는 크게 조사 당시 갖고 있던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조사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되는 문항들(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로 나눌 수 있다.

〈표 2-2〉 1~1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내 용	
가구용 자료	KLIPS_H	가구원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설문(소득, 소비, 주거 등)	
개인용 자료	KLIPS_P	주된 일자리의 특성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응답자 공통	취업자 미취업자
		신규 조사자 문항	
부가조사 자료	KLIPS_A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청년층 조사(9차) 고용형태 조사(10차) 교육(11차)
직업력 자료	KLIPS_W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조사 차수별로 각각 존재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1개의 데이터셋만을 가지게 된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조사 자료와는 달리 3차년도부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차년도 조사가 진행된 2009년 이후부터 고용형태 관련 설문이 본 설문으로 편입되면서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가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연혁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1998년 1차조사가 시작된 이후 9차년도까지는 표본유지율을 최대한 높이고 실사를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9차조사(2006년)부터 중요한 조사전략상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조사도구를 서면조사(Pensile and Paper Interviewing : PAPI)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CAPI)로 이행하기로 한 의사결정이었다. 이를 위해서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개발한 패널조사 전용 소프트웨어인 Blaise에 기반한 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7년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전・충청 지역의 560가구(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 28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도구 변경이 표본의 응답 패턴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즉 모드 효과(mode effects)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두 조사도구 간에 체계적인 응답 패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 11차조사부터 전체 표본에 대해 CAPI로의 전면적인 이행을 실시하였다.

2009년(12차조사)에는 표본의 전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약 1,500개 가구의 표본을 추가하였다[4]. 1998년에 추출된 표본(이하 KLIPS 1998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표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인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9년 표본의 추가에 따라서 제주도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함으로써 전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4) 추가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 장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표 2-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조사 연혁
1차	1998년 노동패널 시작, 5,000가구 및 그 가구원
10차	2007년 노동패널 실사, CAPI 부분 도입
11차	2008년 노동패널 실사, CAPI 전면 도입
12차	2009년 노동패널 실사, 1,415가구 표본 추가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5)]

KLIPS의 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5차년도 조사는 2012년 6월 말부터 1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면접을 통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 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5)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 틀 및 추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klip/ko/main/main.jsp)를 참고.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 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첫째,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 조사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전화조사를 하였다. 셋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 방식이 어떤 비중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는 95.7%까지 증가하였다. 11차조사에서 전년대비 면접조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CAPI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트북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유치나 전화 등의 다른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접조사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후 15차년도까지 평균적으로 93~94% 내외의 면접조사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8%나 되었지만 15차년도에는 0.4%에 불과했다.

〈표 2-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 명, %)

	개인 응답자 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 전화	유치+ 전화	면접+ 유치	면접+ 유치+ 전화
1차년도	13,321	100.0	64.4	21.8	1.5	2.6	3.7	2.6	0.1
2차년도	12,037	100.0	77.8	7.6	7.4	4.7	2.5	0.1	0.0
3차년도	11,205	100.0	83.0	5.1	5.3	3.9	1.5	0.9	0.2
4차년도	11,051	100.0	83.7	3.4	4.6	4.9	1.2	1.8	0.5
5차년도	10,966	100.0	83.8	2.6	3.9	6.4	1.0	1.0	1.3
6차년도	11,541	100.0	86.3	1.7	3.8	5.7	0.9	1.3	0.4
7차년도	11,661	100.0	88.0	1.8	4.1	3.7	0.4	1.6	0.5
8차년도	11,580	100.0	85.4	1.6	2.8	6.1	1.4	1.7	1.0
9차년도	11,756	100.0	89.7	1.5	2.9	2.8	0.7	2.3	0.3
10차년도	11,855	100.0	91.3	1.1	3.2	3.1	0.6	0.6	0.1
11차년도	11,734	100.0	95.7	0.6	1.8	1.3	0.3	0.2	0.1
12차년도	11,739	100.0	92.4	1.7	2.7	2.2	0.6	0.3	0.1
13차년도	11,582	100.0	94.0	0.5	2.7	2.4	0.3	0.1	0.1
14차년도	11,377	100.0	93.0	0.8	3.2	2.2	0.4	0.3	0.1
15차년도	11,444	100.0	93.6	0.4	4.5	1.3	0.1	0.0	0.0

주 :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표 2-5>는 본인 및 대리 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KLIPS 조사는 응답자의 병환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리 응답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본인 응답은 74.0%, 대리 응답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부터 본인 응답 비중이 88.7%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는 대리 응답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5차년도 기준 본인 응답 비중은 9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 횟수는 평균 1.4회로 12차년도부터 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표 2-6 참조). 범주별로는 1회 방문이 75.1%, 2회 방문이 21.7%로 1~2회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성공가구의 방문 횟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

〈표 2-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단위 : 명, %)

	개인 응답자 수	전체 비중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1차년도	13,321	94.1	74.0	19.7	0.4
2차년도	12,037	100.0	88.7	11.3	0.0
3차년도	11,205	100.0	88.3	8.1	3.6
4차년도	11,051	100.0	83.3	11.0	5.5
5차년도	10,966	100.0	83.8	9.8	6.4
6차년도	11,541	100.0	83.1	11.2	5.8
7차년도	11,661	100.0	85.7	9.7	4.7
8차년도	11,580	100.0	87.3	5.0	7.7
9차년도	11,756	100.0	90.0	3.0	7.1
10차년도	11,855	100.0	90.7	5.6	3.7
11차년도	11,734	100.0	91.7	5.8	2.6
12차년도	11,739	100.0	91.4	4.0	4.6
13차년도	11,582	100.0	93.3	3.9	2.8
14차년도	11,377	100.0	92.9	4.7	2.4
15차년도	11,444	100.0	94.5	3.5	2.0

주 : 1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는데,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적함에 따라 일단 표본가구가 조사를 수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이 1~2회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하기 때문이다.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각 연도별로 조사에 진입하기 1~2주 전 5개 권역(수도권/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경남)별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실사에 진입하게 된다. CAPI 도입 첫 해에는 별도의 노트북 및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다음해부터 대부분의 면접원들이 이미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하게 되어 별도의 CAPI 교육기간을 두지 않고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으며, 매주 조사업체로부터 실사 상황을 보고받는다.

〈표 2-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단위 : 회)

	사례 수	평균값	표준 편차	1회	2~3회	4~5회	5회 이상	전체
1차년도	5,000	2.4	1.6	38.1	42.1	14.9	5.0	100.0
2차년도	4,501	2.3	1.5	41.7	40.5	11.7	6.2	100.0
3차년도	4,244	2.6	1.8	34.2	43.2	15.4	7.3	100.0
4차년도	1,583	3.0	2.2	27.3	42.2	19.8	10.7	100.0
5차년도	4,295	2.6	1.7	31.2	43.7	19.3	5.9	100.0
6차년도	4,592	2.9	1.9	28.1	39.9	22.3	9.7	100.0
7차년도	4,762	3.0	2.0	26.3	40.9	21.0	11.8	100.0
8차년도	4,849	3.3	2.1	22.6	38.4	23.9	15.2	100.0
9차년도	5,001	3.0	1.9	23.8	42.4	24.1	9.6	100.0
10차년도	5,064	2.6	1.8	34.4	39.6	18.9	7.2	100.0
11차년도	5,116	2.3	1.4	39.4	43.5	14.2	3.0	100.0
12차년도	5,306	1.3	0.8	79.7	17.4	2.5	0.4	100.0
13차년도	5,378	1.3	0.8	79.1	18.3	2.4	0.3	100.0
14차년도	5,403	1.3	0.8	78.8	18.1	2.4	0.7	100.0
15차년도	5,469	1.4	0.9	75.1	21.7	2.3	0.9	100.0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년도를 제외하고는 1~12차 조사까지 통상 4·5월부터 10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조사의 경우 가구 경제활동 및 개인 일자리 특성 변화와 관련된 회고 설문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조사 체계가 패널조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어 조사가 늦어졌으나, 이후부터 4·5월 조사로 안정화되었다.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전체적인 조사 일정을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패널조사는 전년도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회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회고 오차(recall errors)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철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 말경부터는 응답가구를 접촉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 시작 이후 통상 3~4개월 정도가 지나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조사가 마

〈표 2-7〉 시기별 조사진행률 추이

(단위 :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례 수
1차년도				27.9	30.3	27.9	13.2	0.7			4,518
2차년도					5.0	22.8	22.6	27.3	20.2	2.1	4,508
3차년도		0.2	15.1	28.1	26.1	23.6	5.2	1.7			4,266
4차년도		1.6	16.1	27.2	15.7	23.3	13.0	3.2			4,247
5차년도		4.7	31.3	25.9	26.4	7.2	4.4	0.1			4,298
6차년도			12.7	25.6	30.1	21.3	10.2	0.0			4,592
7차년도			16.7	26.4	24.8	21.1	10.8	0.2			4,762
8차년도		13.9	23.8	24.0	20.1	12.1	5.9	0.3			4,849
9차년도		8.1	25.4	20.5	20.9	14.6	8.6	1.8			5,001
10차년도		14.4	27.0	26.9	20.7	8.3	2.8	0.0			5,064
11차년도		8.7	27.9	23.8	21.0	9.7	4.3	4.6			5,116
12차년도	0.5	35.7	31.7	12.4	9.3	5.2	3.8	1.4			5,306
13차년도					7.7	33.9	19.1	28.6	8.8	2.0	5,379
14차년도					2.2	39.8	19.8	20.4	16.1	1.7	5,403
15차년도				0.9	32.7	28.5	19.1	10.5	6.4	2.0	5,469

주 : 1차년도는 조사월의 모름/무응답 482건을 제외하였음.

무리된다. 다만 패널조사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서 조사 이탈 위험이 큰 표본의 경우에는 높은 숙련을 가진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마지막 1~2개월 동안 설득과정을 거쳐 한계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13~15차년도 조사는 조사 주체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 시작 시점이 6·7월로 변경되었다.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표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차년도 KLIPS의 총 조사표본은 5,469가구와 그 가구 내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1,444명이다.

원표본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가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를 분모가 되는 원표본가구 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전자를 원표본유지율, 후자를 유효표본유지율이라고 하겠다.

KLIPS의 15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70.3%, 유효표본유지율은 73.7%였다. 흔히 패널조사의 신뢰성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원표본유지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KLIPS뿐 아니라 다른 패널조사의 경우에도 2차년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5차년도 KLIPS는 외국의 패널조사에 비해 그 하락폭이 컸으나, 6차년도 이후 표본유지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15차년도를 기준으로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했을 때 독일의 SOEP(72.4%, 가구 기준), 미국의 PSID(60.5%, 개인 기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표본추출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6]으로 살펴보기로 한다(표 2-8 참조). 지역적으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지역의 표본유지율이 15차년도 기준 70% 미만이었고, 전남이 80% 이상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원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에 비해 표본유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도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더 자주 이사를 하는 등 패널 추적이 어려운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 단위의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지역에서 조사 성공하였더라도, 1차 당시 서울 거주자였다면 서울 지역으로 계산하였다.

〈표 2-8〉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단위 : 가구 수, %)

	원표 본수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14차 년도	15차 년도
전체	5,000	87.6	80.9	77.3	76.0	77.2	77.3	76.4	76.4	75.5	74.2	73.1	72.1	70.6	70.3
서울	1,353	84.9	77.6	72.4	70.7	74.0	72.9	72.4	72.0	71.8	71.4	69.5	69.0	66.7	66.5
부산	486	90.5	89.7	88.3	84.4	80.2	78.4	77.8	77.2	77.8	76.1	74.7	72.6	71.6	72.2
대구	314	84.1	72.0	67.5	71.0	77.4	70.1	73.6	72.3	71.3	68.2	69.4	66.6	65.3	66.9
대전	153	83.7	81.1	79.7	76.5	80.4	79.7	75.8	73.9	69.9	69.3	70.6	68.6	66.0	64.7
인천	298	85.6	81.9	73.2	77.9	75.8	79.5	78.2	79.9	75.8	74.8	75.2	77.2	75.5	74.5
광주	158	78.5	69.0	77.2	80.4	79.1	77.2	76.6	75.3	73.4	74.7	70.9	74.1	68.4	67.7
울산	116	96.6	96.6	89.7	86.2	83.6	82.8	79.3	79.3	74.1	72.4	74.1	75.0	72.4	72.4
경기	856	90.2	80.0	72.7	70.2	75.5	79.7	78.3	77.6	77.3	74.8	73.9	71.6	71.9	70.7
강원	130	87.7	86.2	73.8	65.4	63.8	67.7	71.5	73.8	75.4	75.4	72.3	70.0	71.5	70.0
충북	113	87.6	75.2	77.0	75.2	70.8	69.9	67.3	70.8	68.1	69.0	68.1	70.8	68.1	70.8
충남	131	91.6	87.8	84.0	83.2	80.9	80.9	79.4	79.4	81.7	80.2	79.4	77.1	76.3	75.6
전북	199	88.9	74.4	84.9	83.4	81.9	81.9	80.4	81.9	82.4	81.9	79.4	77.4	74.4	74.4
전남	127	92.1	89.8	89.8	89.0	84.3	89.0	86.6	87.4	88.2	86.6	85.8	84.3	83.5	81.9
경북	274	89.4	82.5	80.3	82.1	83.6	84.3	82.1	83.2	77.7	76.3	75.9	74.8	72.3	72.3
경남	292	89.7	88.4	89.4	84.9	83.2	81.2	79.8	80.8	79.8	77.1	76.0	75.7	74.3	75.0

주 : 지역 구분은 1차년도 조사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당해 연도 조사가구 수/원표본가구 수)*100.

제4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응답 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과 함께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 여부 또한 자료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 2-9>는 1~15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9〉 1~15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단위 : 가구수, %)

	전 체		원가구		비원가구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1회	597	7.7	184	3.7	413	14.8
2회	481	6.2	160	3.2	321	11.5
3회	503	6.5	161	3.2	342	12.3
4회	465	6.0	145	2.9	320	11.5
5회	334	4.3	148	3.0	186	6.7
6회	283	3.6	104	2.1	179	6.4
7회	311	4.0	123	2.5	188	6.7
8회	278	3.6	122	2.4	156	5.6
9회	330	4.2	148	3.0	182	6.5
10회	325	4.2	162	3.2	163	5.8
11회	303	3.9	192	3.8	111	4.0
12회	372	4.8	263	5.3	109	3.9
13회	358	4.6	287	5.7	71	2.5
14회	538	6.9	489	9.8	49	1.8
15회	2,312	29.7	2,312	46.2	0	0.0
전 체	7,790	100.0	5,000	100.0	2,790	100.0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7,790가구이고, 이 중 원가구는 64.2%(5,000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비원가구는 35.8%(2,790가구)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15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4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3.7%(184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가 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15회 모두 응답한 가구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 가구의 경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나 혼인 등의 사유로 분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 추적이 어렵고 이탈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분가 가구의 경우 1회 응답가구의 비중이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해 연도 분

가 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분가가구의 응답 횟수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 대상 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15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19,338명이다.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

〈표 2-10〉 1~15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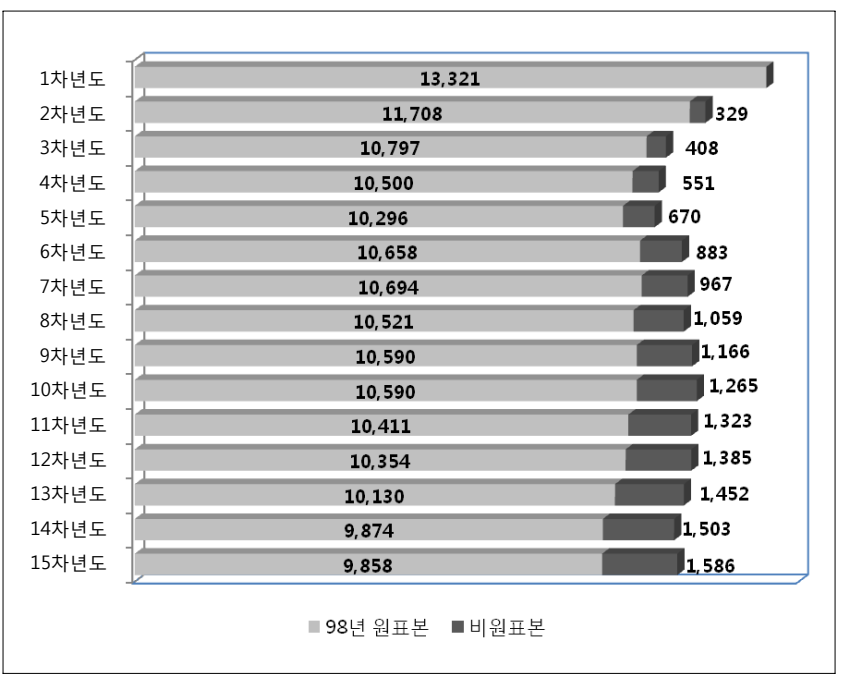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1회	1,419	7.3	209	1.8	1,210	15.1
2회	1,200	6.2	282	2.5	918	11.5
3회	1,183	6.1	331	2.9	852	10.6
4회	1,144	5.9	346	3.1	798	10.0
5회	1,080	5.6	349	3.1	731	9.1
6회	907	4.7	352	3.1	555	6.9
7회	939	4.9	414	3.7	525	6.6
8회	892	4.6	391	3.5	501	6.3
9회	892	4.6	465	4.1	427	5.3
10회	881	4.6	467	4.1	414	5.2
11회	917	4.7	558	4.9	359	4.5
12회	1,060	5.5	750	6.6	310	3.9
13회	1,113	5.8	885	7.8	228	2.8
14회	1,425	7.4	1,247	11.0	178	2.2
15회	4,286	22.2	4,286	37.8	0	0.0
전 체	19,338	100.0	11,332	100.0	8,006	100.0

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4,286명으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 22.2%이며,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1,419명으로 7.3%를 차지하였다. 여기서 개인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는 15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진입한 원표본가구원(즉, 1차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소속되었던 가구원)을 포함한 숫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인 17,505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이었다. 2차년도부터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15차 조사에서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전체 표본 11,444명 중 86.1%인 9,858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

(단위 : 명)



제5절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LIPS 15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2012년에 새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단위 : %)

	전 체			원표본가구			비원표본가구		
	전체 가구 수	이사가구		가구 수	이사가구		가구원 수	이사가구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1차년도	5,000	0	0.0	5,000	-	-	-	-	-
2차년도	4,508	709	15.7	4,378	709	16.2	130	-	-
3차년도	4,266	479	11.2	4,044	439	10.9	222	40	18.0
4차년도	4,248	689	16.2	3,866	589	15.2	382	100	26.2
5차년도	4,298	718	16.7	3,798	599	15.8	500	119	23.8
6차년도	4,592	976	21.3	3,862	726	18.8	730	250	34.2
7차년도	4,762	869	18.2	3,863	599	15.5	899	270	30.0
8차년도	4,849	707	14.6	3,822	438	11.5	1,027	269	26.2
9차년도	5,001	795	15.9	3,820	464	12.1	1,181	331	28.0
10차년도	5,069	752	14.8	3,775	437	11.6	1,294	315	24.3
11차년도	5,116	712	13.9	3,709	407	11.0	1,407	305	21.7
12차년도	5,306	738	13.9	3,657	266	7.3	1,649	472	28.6
13차년도	5,379	946	17.5	3,606	470	13.0	1,773	476	26.4
14차년도	5,403	769	14.1	3,528	269	7.6	1,875	500	26.0
15차년도	5,469	607	11.0	3,517	209	5.9	1,952	398	19.7

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5,38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15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607가구로 분가 가구를 포함한 전체 성공가구의 11.0%이다. 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는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여 15차년도 조사에서는 5.9%에 그쳤으나, 비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15차년도 조사에서는 1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KLIPS 15차년도 분가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성공 5,469가구 중 35.7%인 1,952가구가 분가 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 차수에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1,863가구이며 15차년도에 신규로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8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 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쳤으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15차년도에는 35.7%에 이르고 있다.

〈표 2-12〉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

(단위 : 가구 수, %)

	전체 가구 수	기존 분가	신규 분가	분가 가구	
				가구 수	비중
2차년도	4,508	-	130	130	2.9
3차년도	4,266	98	124	222	5.2
4차년도	4,248	247	135	382	9.0
5차년도	4,298	391	109	500	11.6
6차년도	4,592	575	155	730	15.9
7차년도	4,762	757	142	899	18.9
8차년도	4,849	901	126	1,027	21.2
9차년도	5,001	1,042	139	1,181	23.6
10차년도	5,069	1,178	116	1,294	25.5
11차년도	5,116	1,320	87	1,407	27.5
12차년도	5,306	1,517	132	1,649	31.1
13차년도	5,379	1,630	143	1,773	33.0
14차년도	5,403	1,763	112	1,875	34.7
15차년도	5,469	1,863	89	1,952	35.7

2. 비성공가구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조사 실패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을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로 신규 주소지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조사에 실패하게 된다. 횡단면조사와 달리 패널조사에서는 이사추적 실패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방법론상의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치 파악(locating) 혹은 추적(tracking) 문제로 규정한다.

응답자가 기존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이사추적에 성공하더라도 응답자 접촉 자체에 실패할 수 있다. 둘째, 응답자의 귀가가 늦거나,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주소가 식별되더라도 응답자 접촉에 실패할 수 있다. 셋째, 이상의 단계들을 거치더라도 응답 가구가 패널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패널

〈표 2-13〉 1~15차년도 비성공 사유

(단위 : 가구 수, %)

	유효표본 수	강력거절	이사추적 실패	접촉 불가	기 타	전 체
2차년도	621	59.1	20.9	15.9	4.0	100.0
3차년도	938	66.0	17.4	15.1	1.5	100.0
4차년도	809	53.3	25.7	13.0	8.0	100.0
5차년도	1,315	46.7	23.3	12.7	17.3	100.0
6차년도	1,402	46.6	28.9	13.1	11.3	100.0
7차년도	1,435	47.0	29.8	18.5	4.7	100.0
8차년도	1,539	50.5	27.2	15.3	7.0	100.0
9차년도	1,610	51.1	29.8	7.0	12.2	100.0
10차년도	1,777	49.9	36.0	8.8	5.4	100.0
11차년도	1,907	56.6	31.8	7.3	4.2	100.0
12차년도	2,013	50.4	35.6	10.9	3.1	100.0
13차년도	2,116	42.0	37.1	18.8	2.1	100.0
14차년도	2,291	37.3	44.5	16.1	2.1	100.0
15차년도	2,381	41.3	44.3	12.4	2.0	100.0

주 : 각 연도 거절 사례 수가 기록된 유효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조사의 경우 방대한 설문 문항과 민감한 조사 내용이 반복됨에 따라 패널 응답자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조사 차수가 지날수록 강력거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표본가구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인해 표본 자체가 소멸되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15차년도 기간 동안 가구 비성공 사유를 살펴보면, 조사 초기에는 강력 거절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이사추적 실패의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4차년도부터 이사추적 실패가 급증하여 강력거절을 제치고 최다 비성공 사유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응답자의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5차년도의 경우 이사추적 실패가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강력거절 41.3%로 나타났다.

비성공가구에 대한 면접원의 접촉 횟수는 평균 3.3회로 성공가구의 평균 면접 횟수 1.4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공가구의 경우 사전 전화 접촉

〈표 2-14〉 각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

(단위 : 빈도, %)

	유효표본 수	강력거절	이사추적 실패	접촉 불가	기 타	전 체
2차년도	621	4.1	2.3	4.0	2.6	3.6
3차년도	938	5.4	3.5	5.8	2.3	5.1
4차년도	809	4.1	1.7	4.3	2.0	3.3
5차년도	1,315	3.9	2.8	3.8	3.4	3.5
6차년도	1,402	3.4	2.8	3.9	2.3	3.2
7차년도	1,435	3.6	2.5	3.7	1.7	3.2
8차년도	1,539	3.9	1.9	5.1	2.0	3.4
9차년도	1,610	4.1	2.7	4.5	2.6	3.6
10차년도	1,777	2.9	1.2	3.4	1.2	2.2
11차년도	1,907	2.8	2.4	3.5	1.6	2.6
12차년도	2,013	2.4	2.2	2.5	2.1	2.4
13차년도	2,115	3.6	3.3	3.2	3.5	3.4
14차년도	2,291	3.4	3.1	3.9	1.9	3.3
15차년도	2,382	3.3	3.2	3.4	3.0	3.3

주 : 당해 연도 분가 비성공가구인 104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등을 통해 조사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일정을 조율하여 표본가구를 방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문 횟수가 1~2회에 그친다. 반면 강력거절 가구의 경우 최종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구를 방문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 이사가구의 경우에도 방문 횟수가 적지 않은데 사전적으로 이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가구를 방문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이사가구로 확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신규 조사자의 특성

12차년도 KLIPS의 신규 조사자는 363명으로 이 중 원표본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186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 조사된 가구원은 177명으로 파악되었다.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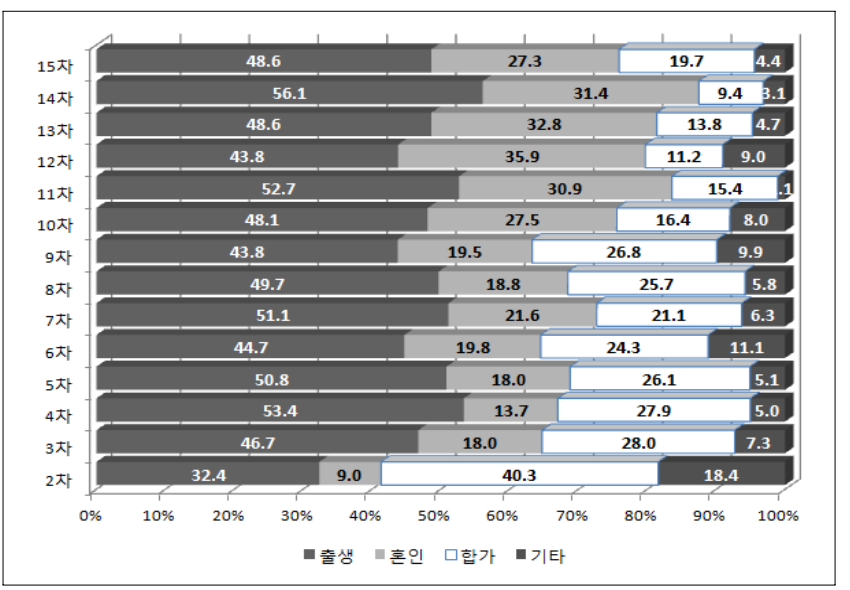
	전체 가구원 수	기존 가구원		신규 가구원		15세 이상		15세 미만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년도	17,505	17,505	100.0	0	0.0	13,853	79.1	3,652	20.9
2차년도	15,754	15,192	96.4	562	3.6	12,609	80.0	3,145	20.0
3차년도	14,662	14,338	97.8	324	2.2	11,839	80.7	2,823	19.3
4차년도	14,412	13,943	96.7	469	3.3	11,657	80.9	2,755	19.1
5차년도	14,309	13,930	97.4	379	2.6	11,636	81.3	2,673	18.7
6차년도	14,956	14,356	96.0	600	4.0	12,186	81.5	2,770	18.5
7차년도	15,255	14,749	96.7	506	3.3	12,443	81.6	2,812	18.4
8차년도	15,211	14,768	97.1	443	2.9	12,460	81.9	2,751	18.1
9차년도	15,418	14,899	96.6	519	3.4	12,693	82.3	2,725	17.7
10차년도	15,414	14,963	97.1	451	2.9	12,711	82.5	2,703	17.5
11차년도	15,213	14,744	96.9	469	3.1	12,559	82.6	2,654	17.4
12차년도	15,459	14,916	96.5	543	3.5	12,826	83.0	2,633	17.0
13차년도	15,433	14,884	96.4	549	3.6	12,825	83.1	2,608	16.9
14차년도	15,314	14,897	97.3	417	2.7	12,701	82.9	2,613	17.1
15차년도	15,390	14,983	97.4	407	2.6	12,795	83.1	2,595	16.9

[그림 2-2]는 비원표본가구원의 신규 추가 이유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에 따르면, 차수별로 다소간 변동은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생'으로 15차년도의 경우 48.6%(198/407명)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혼인'으로 15차년도에 27.3%(111/407명)이었으며, 이전 차수에서 분가했다가 다시 원래의 가구로 합친 '합가'의 비중 역시 19.7%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2-16>과 같다. 15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1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 가구원은 모두 12,795명이었으며 이 중 89.4%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6.2%가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15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8%(322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65.8%,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34.2%(11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단위 : %)



〈표 2-16〉 신규 조사자의 구성

(단위 :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 가구원		신규 가구원					
								만 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년도	13,853	13,321	96.2	13,321	100.0	-	-	-	-	-	-
2차년도	12,609	12,037	95.5	11,236	93.3	801	6.7	478	59.7	323	40.3
3차년도	11,839	11,205	94.6	10,739	95.8	466	4.2	321	68.9	145	31.1
4차년도	11,657	11,051	94.8	10,607	96.0	444	4.0	250	56.3	194	43.7
5차년도	11,636	10,966	94.2	10,564	96.3	402	3.7	234	58.2	168	41.8
6차년도	12,186	11,541	94.7	10,983	95.2	558	4.8	283	50.7	275	49.3
7차년도	12,443	11,661	93.7	11,217	96.2	444	3.8	256	57.7	188	42.3
8차년도	12,460	11,580	92.9	11,199	96.7	381	3.3	227	59.6	154	40.4
9차년도	12,693	11,756	92.6	11,358	96.6	398	3.4	241	60.6	157	39.4
10차년도	12,711	11,855	93.3	11,459	96.7	396	3.3	263	66.4	133	33.6
11차년도	12,559	11,734	93.4	11,342	96.7	392	3.3	257	65.6	135	34.4
12차년도	12,826	11,739	91.5	11,376	96.9	363	3.1	219	60.3	144	39.7
13차년도	12,825	11,582	90.3	11,214	96.8	368	3.2	223	60.6	145	39.4
14차년도	12,701	11,377	89.6	11,062	97.2	315	2.8	220	69.8	95	30.2
15차년도	12,795	11,444	89.4	11,122	97.2	322	2.8	212	65.8	110	34.2

제6절 통합표본 자료의 특성

1. 통합표본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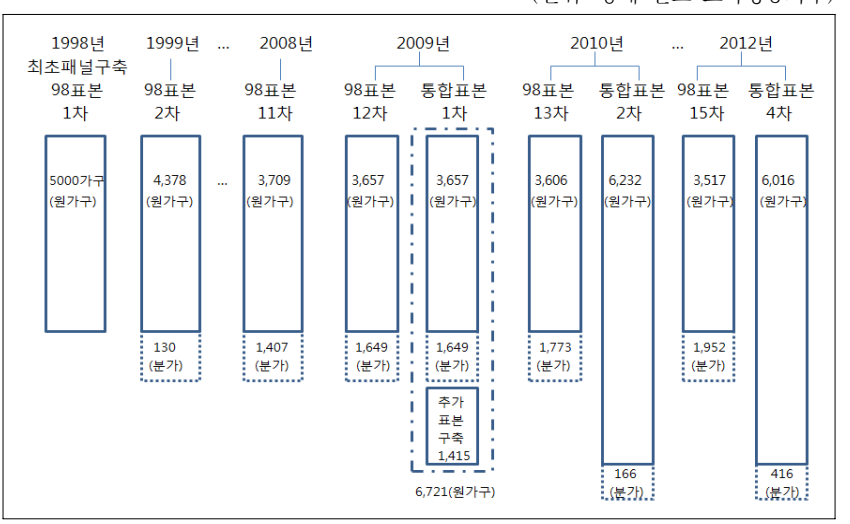
노동패널조사는 도시 지역 5,000가구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어 15차년도 현재 원가구 3,517가구와 분가 가구 1,952가구가 조사되었다.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표본유지율은 70.3%, 원가구 중 소멸가구를 제외한 4,77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효표본유지율은 73.7%로 높은 유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 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9년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표본 추가가 실시되었다[7]. 추가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총 1,415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였다. 이에 노동패널은 1차년도부터 이어온 98표본과 2009년 표본 추가를 통한 통합표본으로 두 개의 패널을 한 데이터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

통합표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2-3]을 살펴보면, 98표본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 동안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 패널이다. 통합표본은 2009년 당시 98표본 원가구 5,000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3,657가구와 분가 가구 1,649가구, 추가 표본 1,415가구를 모두 합한 6,721가구가 통합표본 1차 원가구로 형성되어 2012년까지 4년 동안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림 2-3〕 통합표본의 개요

(단위 : 당해 연도 조사성공가구)



주 : 98표본 원가구 중 2009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원가구가 다음해인 2010년에 조사된다면, 98표본에는 포함되지만, 통합표본의 원가구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통합표본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통합표본은 2009년도에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하는 패널임에 유의해야 함.

7) 표본 추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재광(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통계학과)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추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09. 3)」를 참조.

2. 통합표본유지율의 개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된 2009년의 추가 표본을 포함한 KLIPS 통합표본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 연도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표 2-17>과 같다. 통합표본 1차년도(2009년)에 조사된 가구는 6,721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4,489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92.7%로 나타났으나, 기존 패널이 2차년도에 13.4%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차년도와 4차년도의 원표본유지율이 각각 90.5%, 89.5%로 매우 안정적인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한국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15년 이상으로 축적되었고,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과 조사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에 실시된 제15차 KLIPS 조사에서 통합표본은 원표본 6,016가구 및 분가한 416가구를 합하여 총 6,432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가구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89.5%로 전년도에 비해 1%포인트가 감소

〈표 2-17〉 1~4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통합표본)

	조사대상 원가구-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 수[1]	원표본 가구 수[2]	원표본 유지율[3]	유효표본 유지율[4]	분가 가구 수	가구원 응답자 수[5]	실사 기간
1차('09)	6,721	6,721	6,721	100.0	100.0	-	14,489	4~10월
2차('10)	6,694	6,398	6,232	92.7	93.1	166	13,641	7~11월
3차('11)	6,676	6,386	6,082	90.5	91.1	304	13,409	7~11월
4차('12)	6,641	6,432	6,016	89.5	90.6	416	13,425	6~12월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성공한 분가 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6,721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하였다.

<표 2-18>은 조사 방식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면접의 비중이 94%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방식에서 도입된 CAPI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8〉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통합표본)

(단위 : 명, %)

	개인 응답자 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전화	유치+전화	면접+유치	면접+유치+전화
1차년도	14,489	100.0	93.19	1.50	2.33	2.08	0.52	0.28	0.10
2차년도	13,641	100.0	94.68	0.38	2.26	2.20	0.27	0.11	0.10
3차년도	13,409	100.0	94.03	0.73	2.51	2.01	0.35	0.29	0.07
4차년도	13,425	100.0	94.35	0.38	3.85	1.21	0.14	0.01	0.05

<표 2-19>는 응답자의 본인/대리인 응답 비중을 나타내는데, 본인의 비중이 평균 9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리 응답으로 인한 데이터의 신뢰도 하락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노동패널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표 2-19〉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통합표본)

(단위 : 명, %)

	개인 응답자 수	전체 비중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1차년도	14,489	100.0	91.70	3.89	4.41
2차년도	13,641	100.0	93.72	3.69	2.59
3차년도	13,409	100.0	93.52	4.23	2.25
4차년도	13,425	100.0	94.96	3.11	1.93

<표 2-20>은 1~4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평균 방문 횟수를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1.4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주별로는 평균 1회 방문이 76.4%, 2~3회 방문이 20.5%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적하는 조사로, 일단 표본가구가 조사를 수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이 1~3회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0〉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통합표본)

(단위 : 회)

	사례 수	평균값	표준편차	1회	2~3회	4~5회	5회 이상	전체
1차년도	6,721	1.5	1.0	68.6	26.9	3.6	1.0	100.0
2차년도	6,397	1.3	0.7	80.6	17.1	2.1	0.3	100.0
3차년도	6,386	1.3	0.8	80.3	17.0	2.1	0.6	100.0
4차년도	6,432	1.4	0.9	76.0	21.1	2.2	0.8	100.0

3. 응답 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에서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은 조사성공률과는 또 다르게 매우 중요한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표 2-21>은 1~4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는 총 7,167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93.8%(6,721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비원가구는 6.2%(446가구)이다. 1~4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는 8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

〈표 2-21〉 1~4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통합표본)

(단위 : 가구 수, %)

	전 체		원가구		비원가구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1회	456	6.4	306	4.6	150	33.6
2회	417	5.8	265	3.9	152	34.1
3회	529	7.4	385	5.7	144	32.3
4회	5,765	80.4	5,765	85.8	0	0.0
전 체	7,167	100.0	6,721	100.0	446	100.0

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4.6%(306가구)로 나타났다.

분가 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4회 이상 응답한 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 가구의 경우 1회 응답 가구의 비중이 33.6%인데, 여기는 해당 연도 분가 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 2-22>는 1~4차년도의 기간 동안에 조사에 성공한 가구의 가구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조사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중에서도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가 없기 때문에 이 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조사성공률은 15세 이상의 가구원의 비중과 그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 표를 통해서 1~4차년도에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원표본가구원과 비원표본가구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한 번 이상 응답한 개인은 17,011명이고, 조사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응답한 응답자는 10,965명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한다[8].

〈표 2-22〉 1~4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통합표본)

(단위 : 명, %)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1회	1,619	9.5	57	0.4	1,562	39.3
2회	1,570	9.2	675	5.2	895	22.5
3회	2,857	16.8	1,344	10.3	1,513	38.1
4회	10,965	64.5	10,964	84.1	1	0.0
전 체	17,011	100.0	13,040	100.0	3,9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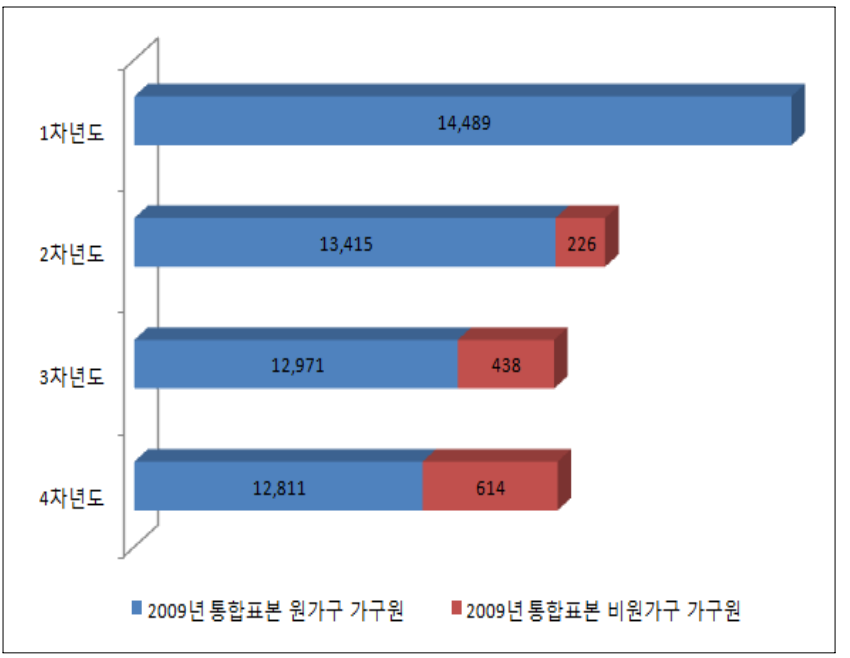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인 19,046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4,489명이었다. 2차년도부터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은 소폭으로 감소하여

8) 개인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는 15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진입한 원표본가구원(즉, 1차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소속되었던 가구원)을 포함한 숫자다.

4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전체 표본 13,425명 중 95.4%인 12,811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4〕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통합표본)

(단위 : 명)



4.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앞선 기존 패널을 소개하면서 이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패널 자료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LIPS 15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통합표본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2012년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6,43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4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654가구로 전체 조사성공가구(6,432가구)의 10.2%이다. 비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4차년도 조사에서는 43.3%로 나타났다.

〈표 2-23〉 이사가구의 분포(통합표본)

(단위 : %)

	전 체			원표본가구			비원표본가구		
	전체 가구 수	이사가구		가구 수	이사가구		가구 수	이사가구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1차년도	6,721	-	-	6,721	-	-			
2차년도	6,398	1,039	16.2	6,232	1,039	16.7	166	-	-
3차년도	6,386	800	12.5	6,082	635	10.4	304	165	54.3
4차년도	6,432	654	10.2	6,016	474	7.9	416	180	43.3

<표 2-24>는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분가로 인해 발생되는 비원표본가구는 매년 약 129개의 분가가 발생되고, 4차년도의 경우 신규 분가 가구는 101개로 전체 가구 6,432개의 1.6%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표 2-2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통합표본)

(단위 : 가구 수, %)

	전체 가구 수	기존 분가	신규 분가	분가 가구	
				가구 수	비중
2차년도	6,398		166	166	2.6
3차년도	6,386	183	121	304	4.8
4차년도	6,432	315	101	416	6.5

5. 비성공가구의 특성

<표 2-25>는 4차년도의 조사 기간에 발생된 비성공 사유를 보여준다. 가장 높은 비성공 사유는 2차년도 강력거절 37.0%, 3차년도 38.4%, 4차년도 4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사추적 실패가 각각 29.4%, 32.8%, 34.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10%의 이사가구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사가구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이 패널 성공률 및 자료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25〉 1~4차년도 비성공 사유(통합표본)

(단위 : 가구 수, %)

	유효표본 수	강력거절	이사추적 실패	접촉 불가	기 타	전 체
2차년도	462	37.0	29.4	28.6	5.0	100.0
3차년도	680	38.4	32.8	23.8	5.0	100.0
4차년도	799	43.7	34.7	18.9	2.8	100.0

주 : 각 연도 거절 사례 수가 기록된 유효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표 2-26>은 비성공가구에게 시도된 조사 과정에서의 방문 횟수를 보여주는데, 4차년도 평균 3.3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성공가구는 1회 방문이 7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비성공가구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매우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은 패널조사 과정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표 2-26〉 각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통합표본)

(단위 : 빈도, %)

	유효표본 수	강력거절	이사추적 실패	접촉 불가	기 타	전 체
2차년도	446	3.5	3.4	3.4	3.4	3.4
3차년도	667	3.6	3.4	4.0	2.4	3.6
4차년도	800	3.5	3.1	3.4	3.0	3.3

6. 신규 조사자의 특성

<표 2-27>은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에서 신규 가구원의 비중은 4차년도 2.4%이고, 조사 기간이 증가될수록 소폭 감소되고 있다. 신규 가구원의 증감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2-5]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된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는 출생, 혼인, 합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출생으로 추가된 신규 가구원은 2차년도 45.6%, 3차년도 52.8%, 4차년도 45.8%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혼인으로 인한 신규 가구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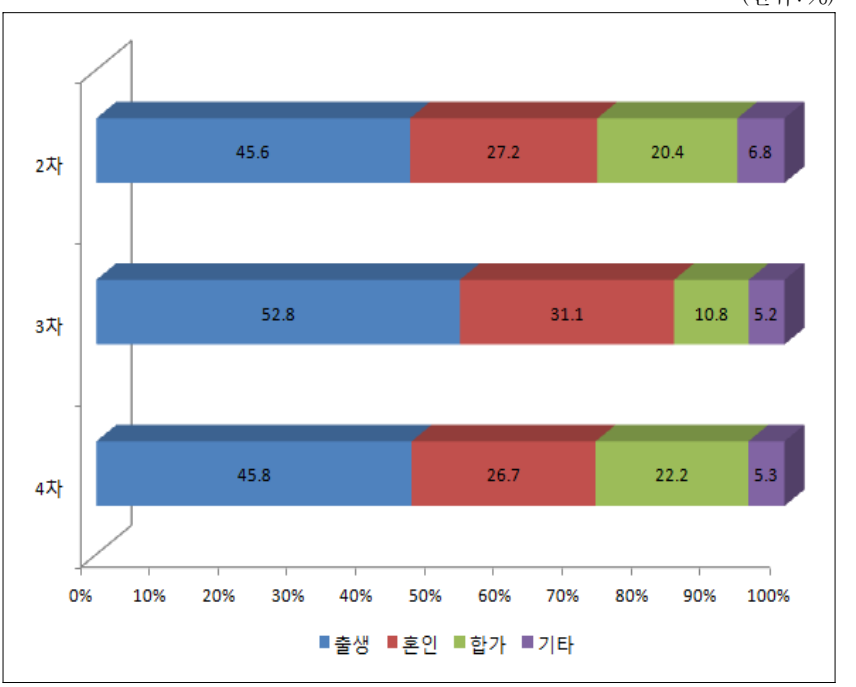
〈표 2-27〉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통합표본)

(단위 : 명, %)

	전체 가구원 수	기존 가구원		신규 가구원		15세 이상 가구원		15세 미만 가구원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년도	19,046	19,046	100.0	-	-	15,817	83.0	3,229	17.0
2차년도	18,055	17,500	96.9	555	3.1	15,014	83.2	3,041	16.8
3차년도	17,824	17,400	97.6	424	2.4	14,863	83.4	2,961	16.6
4차년도	17,819	17,400	97.6	419	2.4	14,916	83.7	2,903	16.3

〔그림 2-5〕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통합표본)

(단위 : %)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2-28>이다. 이 표는 가구데이터에는 조사되었지만, 개인 응답을 하지 않은 가구원은 누락되어 있어 가구원 중에 신규로 진입한 구성원을 설명하는 <표 2-27>과 다른 개념임에 유의해야 한다.

〈표 2-28〉 신규 조사자의 구성(통합표본)

(단위 :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 조사자		신규 조사자					
								만 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년도	15,817	14,489	91.6	14,489	100.0	-	-	-	-	-	-
2차년도	15,014	13,641	90.9	13,171	96.6	470	3.4	324	68.9	146	31.1
3차년도	14,863	13,409	90.2	12,984	96.8	425	3.2	318	74.8	107	25.2
4차년도	14,916	13,425	90.0	13,040	97.1	385	2.9	264	68.6	121	31.4

4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1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 가구원은 모두 14,916명이었고, 이 중 90.0%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1.6%에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4차년도 개인 조사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9%(385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68.6%,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31.4%(12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3 장

조사 가구의 특성

본 장에서는 15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 성공한 5,469가구(기존 패널)와 그 가구의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15년간의 노동패널조사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본 장에서는 기존 패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에 추가한 패널 가구는 제외함). 분석 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본 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하며, 가구원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9]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표 3-1>은 15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 수 변화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보듯이, 평균 가구원 수는 2.8인으로 나타난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 광역시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 도 지역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으로 거주지별 평균 가구원 수는 동일하였다. 전반적인 가구원 수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2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인(22.2%), 2인(21.4%)과 3인(1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

	전 체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평균 (인)
1차년도	5,000	10.2	13.1	19.4	38.0	13.8	5.5	3.5
2차년도	4,507	9.8	13.1	19.7	38.2	14.3	4.9	3.5
3차년도	4,266	10.3	13.7	19.7	37.9	13.6	4.7	3.5
4차년도	4,247	10.9	14.3	18.7	38.6	13.3	4.2	3.4
5차년도	4,298	11.2	15.3	19.3	38.3	12.3	3.6	3.4
6차년도	4,592	12.5	16.2	19.8	37.0	11.4	3.1	3.3
7차년도	4,761	13.4	16.5	20.5	36.4	10.5	2.7	3.2
8차년도	4,849	14.4	17.3	20.9	35.5	9.6	2.3	3.2
9차년도	5,001	16.2	17.9	20.2	34.4	9.1	2.2	3.1
10차년도	5,069	17.5	18.0	20.6	33.4	8.6	1.8	3.0
11차년도	5,116	18.3	19.3	21.1	31.9	7.7	1.6	3.0
12차년도	5,306	19.8	19.8	20.7	31.2	6.9	1.5	2.9
13차년도	5,379	20.2	21.2	20.4	29.8	6.9	1.4	2.9
14차년도	5,403	21.4	21.4	19.8	29.7	6.4	1.3	2.8
15차년도	5,469	22.2	21.4	19.2	29.6	6.3	1.4	2.8

9) 이들은 원가구원일 경우 분가 가구 및 분가 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된다.

15차년도 가구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한 반면, 1~2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을 볼 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10]에서 추정된 1인 가구의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KLIPS의 경우 표본 설계 당시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표본추출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인구센서스에 비해 과소표집된 탓으로 보인다.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 가구의 세대 구성[11]을 살펴보면,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5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6.8%를 차지하였다. 한편 1인 가구가 22.2%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4.4%였다.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차년도에 그 비중이 10.2%에 그쳤던 데 반해 15차년도 조사에서는 2배 이상이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1차년도 9.8%에 비해 오히려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은 제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15차년도 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51.9%가 도 지

---

10)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은 2002년 17.3%, 2003년 18.2%, 2004년 19.1%, 2005년 20.0%, 2006년 20.7%, 2007년 21.5%, 2008년 22.3%, 2009년 23.1%, 2010년 23.9%, 2011년 24.7%, 2012년 25.3%로 각각 나타났다.

11)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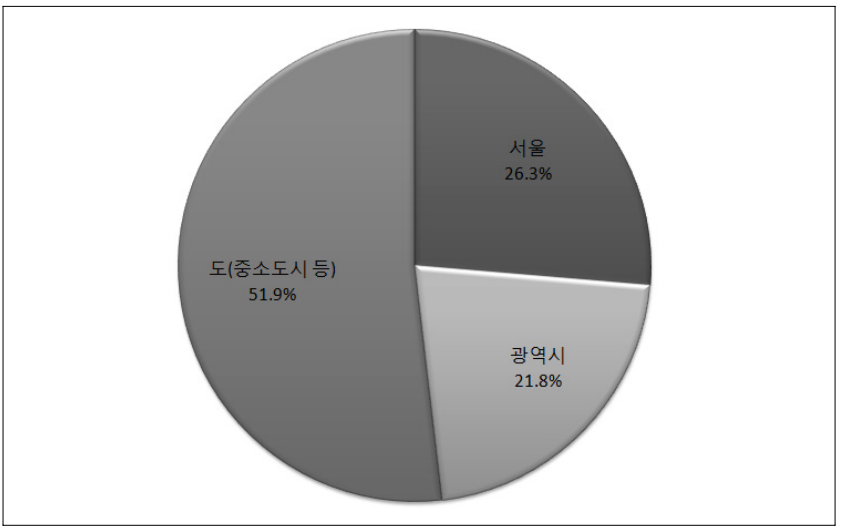
	전체 (가구 수)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
1차년도	5,000	10.2	10.1	69.8	9.8	0.1
2차년도	4,507	9.7	10.2	70.1	9.9	0.1
3차년도	4,266	10.2	10.7	69.6	9.4	0.1
4차년도	4,247	10.9	11.0	69.1	8.9	0.2
5차년도	4,298	10.9	11.9	68.8	8.3	0.1
6차년도	4,592	12.5	12.2	67.7	7.6	0.1
7차년도	4,761	13.4	12.1	67.6	6.8	0.1
8차년도	4,849	14.4	12.8	66.1	6.6	0.1
9차년도	5,001	16.2	13.3	64.1	6.4	0.0
10차년도	5,069	17.5	13.4	63.0	6.1	0.0
11차년도	5,116	18.3	14.1	62.2	5.4	0.0
12차년도	5,306	19.8	14.9	60.3	5.0	0.0
13차년도	5,379	20.2	16.1	58.8	4.8	0.0
14차년도	5,403	21.4	16.5	57.6	4.6	0.0
15차년도	5,469	22.2	16.8	56.7	4.4	0.0

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에는 26.3%, 광역시 지역에는 21.8%만이 거주해 중소도시일수록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3>은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핵가족이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 단독),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 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한부모+미혼 자녀) 등으로 정의한다. 먼저 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47.4%로 가장 높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 단독 가구가 15.9%, 한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7.0%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4.4%에서

〔그림 3-1〕 15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

	전 체 (가구 수)	핵가족 가구				1인 가구	비핵가구
			부부 단독	부모 + 미혼자녀	한부모+ 미혼자녀		
1차년도	5,000	74.4	9.0	59.3	6.1	10.2	15.4
2차년도	4,507	74.7	9.1	59.5	6.1	9.7	15.5
3차년도	4,266	75.0	9.6	59.0	6.4	10.2	14.8
4차년도	4,247	75.7	10.2	59.1	6.4	10.9	13.4
5차년도	4,298	76.0	10.9	58.5	6.6	10.9	13.2
6차년도	4,592	75.4	11.4	56.3	7.7	12.5	12.1
7차년도	4,761	75.5	11.3	56.2	8.0	13.4	11.1
8차년도	4,849	74.9	12.0	54.6	8.3	14.4	10.7
9차년도	5,001	73.6	12.5	53.1	8.0	16.2	10.2
10차년도	5,069	72.8	12.6	52.3	7.9	17.5	9.8
11차년도	5,116	72.6	13.2	51.3	8.1	18.3	9.1
12차년도	5,306	71.7	13.8	50.0	7.9	19.8	8.5
13차년도	5,379	71.5	15.1	48.6	7.8	20.2	8.3
14차년도	5,403	70.7	15.5	47.8	7.4	21.4	7.8
15차년도	5,469	70.3	15.9	47.4	7.0	22.2	7.6

5차년도(76.0%)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6차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15차년도에 7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 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0년 68.3%, 2001년 67.6%, 2002년 67.0%, 2003년 66.4%, 2004년 65.7%, 2005년 65.0%, 2006년 64.4%, 2007년 63.7%, 2008년 63.0%, 2009년 62.3%, 2010년 61.6%, 2011년 60.9%, 2012년 60.4%로 각각 나타나,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약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본 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2]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5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3.3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7.9%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

12)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 · 혼인상태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단위 :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14차 년도	15차 년도
전 체		4,989	4,473	4,226	4,221	4,230	4,548	4,684	4,763	4,923	4,986	5,041	5,154	5,215	5,220	5,298
성 별	남 성	86.1	86.0	85.9	85.6	85.2	83.4	82.9	81.5	81.0	80.7	79.9	79.2	78.2	78.3	77.9
	여 성	13.9	14.0	14.1	14.4	14.8	16.6	17.1	18.5	19.0	19.3	20.1	20.8	21.8	21.7	22.1
혼인상태	미 혼	6.5	5.9	6.2	5.7	5.9	6.5	7.1	7.6	8.6	9.2	9.3	10.7	10.7	11.5	12.0
	기혼유배우	79.7	79.6	79.0	78.8	78.5	76.2	74.6	72.8	71.3	70.6	69.7	68.1	67.7	67.0	66.6
	기혼무배우	13.7	14.5	14.8	15.5	15.6	17.3	18.3	19.6	20.1	20.2	20.9	21.2	21.6	21.5	21.4
연 령	30세 미만	6.3	4.9	4.2	4.4	4.0	4.4	4.1	4.5	4.5	4.5	4.5	5.2	5.2	4.8	4.6
	30대	26.9	26.6	25.1	22.7	22.2	21.6	20.9	19.4	18.6	17.9	16.6	16.2	16.2	16.5	15.7
	40대	28.5	28.1	28.4	29.6	28.6	28.6	28.0	26.9	26.1	25.9	25.3	24.5	22.9	21.7	20.8
	50대	20.0	20.1	20.4	20.1	20.3	20.2	21.4	22.4	23.1	23.1	23.3	23.3	23.6	24.5	25.1
	60세 이상	18.3	20.3	21.9	23.3	24.9	25.2	25.7	26.8	27.6	28.7	30.3	30.7	32.1	32.7	33.9
	평균(세)	46.8	47.6	48.3	48.9	49.4	49.6	50.1	50.6	51.0	51.4	52.0	52.1	52.4	52.9	53.3
교육수준	무 학	6.3	6.3	6.3	6.0	6.0	5.8	5.6	5.6	5.4	5.2	5.2	5.0	4.9	4.8	4.6
	고졸 미만	33.7	33.6	33.6	34.7	33.5	31.9	31.2	31.0	29.9	29.3	28.8	27.7	26.9	25.8	25.1
	고 졸	34.9	34.4	34.4	32.8	32.8	32.6	31.8	31.3	31.1	30.5	29.2	29.1	28.8	28.8	28.7
	대재 및 중퇴	2.8	2.7	2.4	2.6	2.4	2.7	3.1	3.0	3.3	3.5	3.6	3.8	3.5	3.6	3.9
	(전문)대졸 이상	22.3	23.1	23.4	23.9	25.3	27.0	28.3	29.1	30.2	31.6	33.3	34.4	36.0	37.1	37.7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역시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중이 전체 연령계층 중 가장 높은 비중인 33.9%를 차지하였다. 8차년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40대는 20.8%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15차년도에는 37.7%까지 증가하였다.

2.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개인 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1,443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표 3-5>에서는 15차년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1.4%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조사 차수가 반복되면서 51%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15차년도 조사에서는 여성이 51.1%, 남성이 48.9%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5.9세로 나타났다. 15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23.8%로 1차년도(13.6%)에 비해 10.2%포인트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10.9%)에 비해 2.5%포인트가 하락한 8.4%로 나타났다.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30대와 40대이지만 차수가 지날수록 30대와 40대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50대와 60대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5차년도에 30대는 15.6%이고 60대 이상은 23.8%로 나타났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이 2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무학의 비중도 4.1%나 되었고, 고졸 미만은 27.3%였다. 전반적으로 고학력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1차년도에 12.2%에 불과하던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15차년도에 21.9%까지 증가하였다.

〈표 3-5〉 1~15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14차 년도	15차 년도
전 체		13,321	12,037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11,855	11,734	11,739	11.582	11,376	11,443
성 별	남 성	48.6	48.2	48.3	48.3	48.6	48.4	48.7	48.5	48.6	49.0	48.9	49.0	49.0	48.8	48.9
	여 성	51.4	51.8	51.7	51.7	51.4	51.6	51.3	51.5	51.4	51.0	51.1	51.0	51.0	51.2	51.1
연 령	15~19세	10.9	10.8	9.8	9.1	8.6	8.5	8.5	8.5	8.5	8.8	9.3	8.9	8.7	8.7	8.4
	20~24세	9.3	8.8	9.0	9.4	8.9	8.8	8.4	7.2	7.0	6.6	6.3	6.3	6.4	6.4	6.8
	25~29세	10.9	10.5	10.2	9.9	9.4	9.8	9.3	9.7	9.4	9.2	8.9	9.0	7.9	7.2	6.8
	30~39세	23.0	22.6	22.1	21.2	21.4	20.7	20.5	19.7	18.7	18.4	17.3	16.9	17.1	16.9	15.6
	40~49세	19.7	19.6	19.9	20.8	20.8	21.1	21.3	21.4	21.3	21.0	20.9	20.6	19.9	19.3	19.1
	50~59세	12.7	12.9	13.2	13.2	13.6	13.9	14.5	15.3	16.2	16.4	16.9	17.3	17.8	18.8	19.6
	60세 이상	13.6	14.9	15.8	16.3	17.3	17.4	17.5	18.3	18.9	19.6	20.5	21.0	22.2	22.9	23.8
	평균(세)	39.7	40.3	40.8	41.2	41.8	42.0	42.3	42.9	43.4	43.7	44.1	44.4	44.9	45.5	45.9
혼인 상태	미 혼	28.8	28.7	28.9	28.8	28.4	29.1	29.1	28.9	29.2	29.7	29.8	30.1	29.5	29.1	29.1
	기혼유배우	62.7	62.3	62.1	62.0	62.1	61.1	60.7	60.4	59.9	59.3	59.0	58.6	58.9	59.4	59.6
	기혼무배우	8.5	9.0	9.0	9.2	9.5	9.9	10.1	10.7	10.9	11.0	11.2	11.3	11.6	11.5	11.3
교육 수준	무 학	6.5	6.6	6.4	6.0	6.0	5.6	5.3	5.2	5.0	4.7	4.6	4.4	4.1	4.1	4.1
	고졸 미만	35.5	34.8	34.2	34.3	33.3	32.1	31.6	31.5	31.2	30.5	30.5	29.6	29.0	28.2	27.3
	고 졸	31.9	31.9	31.9	30.2	30.1	29.4	28.8	28.7	28.0	27.7	26.5	26.5	26.5	26.2	26.5
	대재 및 중퇴	8.5	8.4	8.3	9.2	8.8	9.0	9.1	8.5	8.9	9.3	9.3	9.3	9.1	9.2	9.4
	전문대졸	5.4	5.8	6.3	6.8	7.4	8.0	8.4	8.9	8.9	9.2	9.8	10.1	10.6	10.7	10.8
	대졸 이상	12.2	12.5	12.9	13.5	14.5	15.9	16.8	17.3	18.0	18.7	19.3	20.2	20.7	21.6	21.9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 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 군입대,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의 인구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13)]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15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2,798명이고,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2차년도 148명, 3차년도 122명, 4차년도 191명, 5차년도 150명, 6차년도 217명, 7차년도 206명, 8차년도 172명, 9차년도 187명, 10차년도 217명, 11차년도 247명, 12차년도 239명, 13차년도 269명, 14차년도 235명, 15차년도 19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차, 7차, 10차년도의 경우에는 여아의 비중이 남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연도에는 남아의 비중이 여아의 출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1~15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자. 총 사망자는 997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64명, 3차년도 59명, 4차년도 92명, 5차년도 60명, 6차년도 80명, 7차년도 72명, 8차년도 80명, 9차년도 76명, 10차년도 54명, 11차년도 63명, 12차년도 70명, 13차년도 89명, 14차년도 65명, 15차년도 73명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59.1%(589명), 여성이 40.9%(408명)로 남성이 약 18%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망자의 성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추세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

---

13) 이 절의 분석에서도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 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15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출생한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인 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표 3-6〉 2~15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남성 비율	여성 비율
2차년도	148	75	73	(50.7)	(49.3)
3차년도	122	64	58	(52.5)	(47.5)
4차년도	191	86	105	(45.0)	(55.0)
5차년도	150	84	66	(56.0)	(44.0)
6차년도	217	113	104	(52.1)	(47.9)
7차년도	206	100	106	(48.5)	(51.5)
8차년도	172	92	80	(53.5)	(46.5)
9차년도	187	109	78	(58.3)	(41.7)
10차년도	217	105	112	(48.4)	(51.6)
11차년도	247	143	104	(57.9)	(42.1)
12차년도	239	131	108	(54.8)	(45.2)
13차년도	269	135	134	(50.2)	(49.8)
14차년도	235	125	110	(53.2)	(46.8)
15차년도	198	108	90	(54.5)	(45.5)
전 체	2,798	1,470	1,328	(52.5)	(47.5)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비중임.

면, 조사 기간 동안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6.9%이고, 50~59세가 6.9%, 60~69세는 13.7%, 70~79세는 23.3%, 80세 이상은 49.3%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사망한 가구원의 절반 정도가 8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2차년도 사망자는 65.5세였는데,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며 15차년도에는 75.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연령 또한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 3-8>을 통해 15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질병이 4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환이 49.3%, 사고 및 기타가 6.9%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3-7〉 2~15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단위 : 명, %)

		전 체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14차 년도	15차 년도
전 체		997	64	59	92	60	80	72	80	76	54	63	70	89	65	73
성별	남성	589 (59.1)	44 (68.8)	36 (61.0)	41 (44.6)	36 (60.0)	50 (62.5)	51 (70.8)	47 (58.8)	47 (61.8)	34 (63.0)	34 (54.0)	38 (54.3)	58 (65.2)	31 (47.7)	42 (57.5)
	여성	408 (40.9)	20 (31.3)	23 (39.0)	51 (55.4)	24 (40.0)	30 (37.5)	21 (29.2)	33 (41.3)	29 (38.2)	20 (37.0)	29 (46.0)	32 (45.7)	31 (34.8)	34 (52.3)	31 (42.5)
사망 당시 연령	50세 미만	121 (12.1)	12 (19.1)	6 (10.3)	10 (10.9)	12 (20.0)	15 (18.8)	12 (16.7)	7 (8.8)	8 (10.5)	3 (5.6)	5 (7.9)	8 (11.4)	11 (12.4)	7 (10.8)	5 (6.9)
	50~59세	104 (10.4)	6 (9.5)	6 (10.3)	12 (13.0)	6 (10.0)	9 (11.3)	12 (16.7)	11 (13.8)	5 (6.6)	5 (9.3)	4 (6.4)	6 (8.6)	12 (13.5)	5 (7.7)	5 (6.9)
	60~69세	188 (18.8)	18 (28.6)	15 (25.9)	11 (12.0)	10 (16.7)	20 (25.0)	16 (22.2)	14 (17.5)	18 (23.7)	8 (14.8)	16 (25.4)	13 (18.6)	12 (13.5)	7 (10.8)	10 (13.7)
	70~79세	266 (26.7)	14 (22.2)	17 (29.3)	26 (28.3)	23 (38.3)	14 (17.5)	19 (26.4)	19 (23.8)	19 (25.0)	13 (24.1)	18 (28.6)	22 (31.4)	26 (29.2)	19 (20.2)	17 (23.3)
	80세 이상	316 (31.7)	13 (14.1)	14 (24.1)	33 (35.9)	9 (15.0)	22 (27.5)	13 (18.1)	29 (36.3)	26 (34.2)	25 (46.3)	20 (31.8)	21 (30.0)	28 (31.5)	27 (41.5)	36 (49.3)
평균연령		-	65.5	69.3	70.7	66.8	67.2	64.9	72.2	72.5	75.3	72.4	71.7	69.7	73.9	75.8

주 : 사망 시기를 응답하지 않아 사망 당시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명 있음.

〈표 3-8〉 2~15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

(단위 : %)

	노 환	질 병	사 고	기 타
2차년도	45.3	40.6	10.9	3.2
3차년도	50.9	37.3	11.8	0.0
4차년도	53.3	40.2	6.5	0.0
5차년도	44.4	48.2	7.4	0.0
6차년도	43.8	46.6	9.6	0.0
7차년도	33.3	50.0	5.6	11.1
8차년도	40.0	52.5	5.0	2.5
9차년도	51.3	36.8	7.9	4.0
10차년도	55.6	38.9	3.7	1.9
11차년도	54.0	42.9	0.0	3.2
12차년도	37.1	50.0	12.9	0.0
13차년도	42.7	46.1	11.2	0.0
14차년도	47.7	36.9	13.9	1.5
15차년도	49.3	43.8	5.5	1.4

제 4 장

가계경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15차년도(2012년) 조사에서도 지난 조사에 이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의 가구소득 부문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 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 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하였다. 또한 2~15차년도의 연간 총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제시하였다.

제1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별히 9차년도 조사에서부터는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나누어 물어보고 있다. 또한 13차년도 조사에서부터는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의 수급 여부도 묻기 시작하여 이전소득 총액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소득 또한 9차년도 조사에서는 그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4)]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15차년도의 경우 2011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의 비교가능성을 생각하여 기타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온전한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15]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16]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4,153만 원(월평균 346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1만 원 정도 늘어났으나,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17]하면 14차년도에 비해 19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차년도(1998년 소득)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다 2011년에 약간 하락하였다.

---

14) 15차년도에 조사된 기타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을 받은 금액 포함), (2)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3) 보험금 - 종신보험, (4) 퇴직금, (5) 증여・상속, (6) 축의금・조의금, (7) 복권이나 경마, 오락 경기 등의 당첨 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8) 교통사고나 폭설・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9) 기타.

15) 성재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통권 14호) 참조.

16)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득액을 0으로 처리.

17) 실질소득 = (명목소득 / 당해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00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조사」의 물가지수(2010년 = 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표 4-1〉 연도별 가구의 총소득

(단위 : 가구, 만 원)

	2차년도 (1998년)	3차년도 (1999년)	4차년도 (2000년)	5차년도 (2001년)	6차년도 (2002년)	7차년도 (2003년)	8차년도 (2004년)
명목소득	1,896 (0.016)	2,017 (0.020)	2,173 (0.015)	2,664 (0.018)	2,824 (0.018)	2,977 (0.017)	3,094 (0.017)
실질소득	2,673	2,821	2,972	3,502	3,612	3,678	3,691
	9차년도 (2005년)	10차년도 (2006년)	11차년도 (2007년)	12차년도 (2008년)	13차년도 (2009년)	14차년도 (2010년)	15차년도 (2011년)
명목소득	3,368 (0.018)	3,587 (0.019)	3,733 (0.019)	3,675 (0.015)	3,936 (0.019)	4,012 (0.016)	4,153 (0.015)
실질소득	3,910	4,073	4,134	3,888	4,052	4,012	3,993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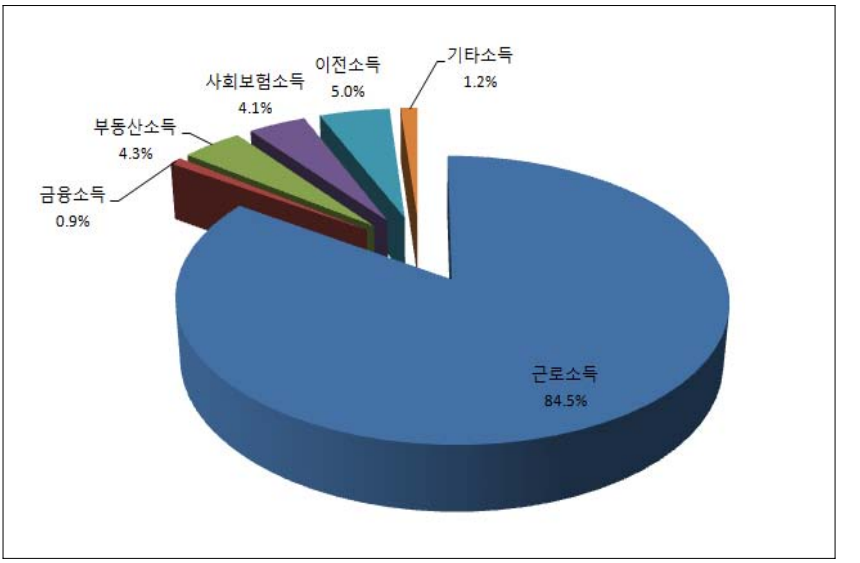
<표 4-2>와 [그림 4-1]을 통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에 대해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4.1%였으며, 그 금액도 가장 큰 것(4,15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기타소득과 부동산소득이 각각 연평균 2,271만 원, 1,650만 원으로 비교적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소득액이 가장 낮은 소득원천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평균 367만 원에 불과했다. 이전소득의 경우 연간 평균 423만 원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액 기준이 아닌 소득 유무

〈표 4-2〉 15차년도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단위 : 만 원, %)

	연평균소득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근로소득	4,150	84.1
금융소득	367	10.3
부동산소득	1,650	10.8
사회보험소득	844	20.0
이전소득	423	49.3
기타소득	2,271	2.2

〔그림 4-1〕 15차년도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49.3%의 가구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해,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가구의 전체 소득액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을 살펴보면, 역시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84.5%)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득은 가구 총소득 중 0.9%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가구지출

본 절에서는 15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지출은 작년 한 해(15차년도의 경우 2011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

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용돈, 피복비, 헌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서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헌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9차년도 조사부터는 용돈 항목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11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로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이후 9차년도 조사부터는 종신보험 항목을, 10차년도 조사부터는 적립식 펀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1. 생활비

<표 4-3>은 2~15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제시하였다. 15차년도 조사에서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9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증가폭은 4차년도에서 5차년도에 대폭 상승하며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2차년도 16.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5차년도 조사에서는 6.2%까지 감소한 반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2차년도에는

〈표 4-3〉 2~15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단위 : 가구, %, 만 원)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473	4,248	4,211	4,290	4,567	4,745	4,804
50만 원 미만	16.7	15.6	13.9	11.6	10.8	9.5	8.9
50만~100만 원 미만	34.9	31.0	28.7	21.2	20.2	18.3	17.6
100만~150만 원 미만	28.4	25.9	28.0	26.3	23.9	21.3	21.0
150만~200만 원 미만	11.3	14.5	15.5	19.0	18.6	19.7	18.5
200만~250만 원 미만	5.8	7.8	8.0	11.6	12.8	13.8	14.8
250만~300만 원 미만	1.1	2.3	2.5	4.8	5.6	7.0	7.2
350만 원 이상	1.8	2.8	3.4	5.5	8.0	10.6	12.0
월평균 생활비 (변동계수)	101 (0.009)	108 (0.010)	118 (0.011)	137 (0.011)	151 (0.011)	163 (0.011)	169 (0.011)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전 체	4,954	5,032	5,114	5,306	5,370	5,403	5,411
50만 원 미만	9.0	8.6	7.0	7.3	6.8	7.1	6.2
50만~100만 원 미만	16.6	16.1	15.6	13.6	14.2	13.4	12.4
100만~150만 원 미만	20.0	18.1	16.9	15.7	16.3	14.9	15.3
150만~200만 원 미만	17.5	16.3	16.5	15.7	15.4	14.2	13.7
200만~250만 원 미만	14.7	14.3	15.0	15.2	13.9	14.7	14.5
250만~300만 원 미만	7.9	9.6	9.6	10.3	9.6	9.0	9.7
350만 원 이상	14.3	17.0	19.5	22.3	23.7	26.8	28.2
월평균 생활비 (변동계수)	177 (0.011)	190 (0.011)	193 (0.012)	201 (0.011)	204 (0.012)	214 (0.012)	223 (0.012)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2.9%에 불과했으나 5차년도부터는 크게 증가하여 15차년도에는 3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18]을 살펴보면(표 4-4 참조), 월평균 식비는 37만 원으로 식비의 비중이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

18) 한국노동패널 2, 4~15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 4-4〉 15차년도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단위 : 만 원, %)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생활비에서의 비중
식비	37	16.5
외식비	9	4.2
공교육비	13	5.9
사교육비	14	6.4
차량유지비	21	9.2
주거비	20	9.0
경조사비	7	3.3
보건의료비	6	2.7
문화비	7	3.3
내구재	4	1.8
통신비	12	5.5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1	0.2
자녀 용돈	11	4.7
그 외 가구원의 용돈	21	9.2
피복비	7	3.1
헌금 및 기부금	4	1.7
국민연금	9	3.9
의료보험	9	4.0
대중교통비	5	2.4
생필품 구입비	5	2.4
기 타	1	0.6
전체 생활비	223	100.0

(16.5%)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월평균 공교육비는 13만 원, 사교육비는 14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9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생필품 구입비는 월평균 5만 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차년도부터 세분화하여 질문하고 있는 용돈의 경우에는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이 1만 원, 자녀 용돈이 11만 원, 그 외 가구원의 용돈이 2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의 액수가 적은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차년도부터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각각 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저 축

15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3.3%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56만 8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참조).

2~15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52.1%와 51.4%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4차년도에는 68.9%로 증가하였고, 5차년도에는 73.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은 65.3%, 7차년도에는 64.8%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8차년도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다가 11차년도와 12차년도에서 감소 후 다시 13차년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2차년도 24만 6천 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표 4-5〉 2~15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단위 : 가구,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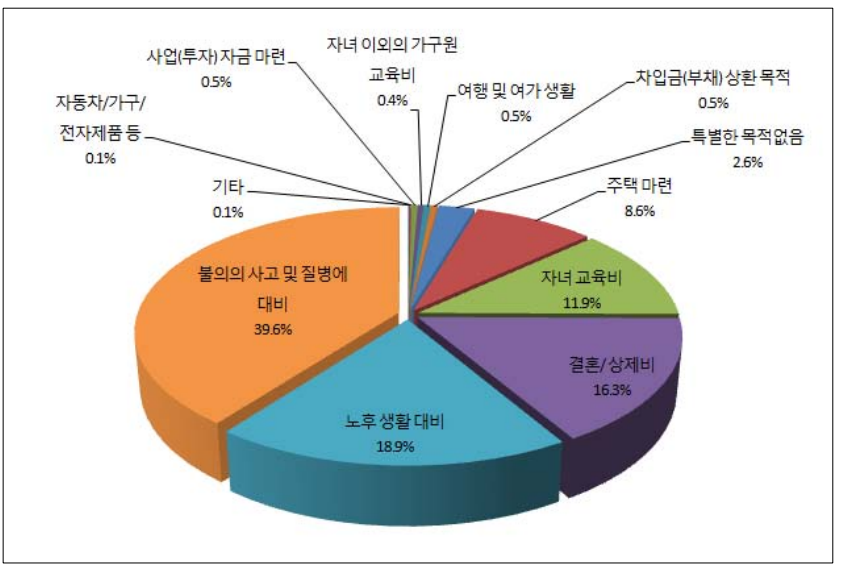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507	4,266	4,247	4,298	4,592	4,761	4,849
저축 안함	47.9	48.6	31.1	26.9	34.7	35.2	31.8
저축함	52.1	51.4	68.9	73.1	65.3	64.8	68.2
월평균 저축액	24.6	28.6	34.1	41.7	40.9	43.1	44.3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전 체	5,001	5,069	5,116	5,306	5,379	5,403	5,469
저축 안함	31.6	31.1	40.2	43.0	41.5	39.0	36.7
저축함	68.4	68.9	59.8	57.0	58.5	61.0	63.3
월평균 저축액	45.3	51.9	47.0	47.6	48.6	51.8	56.8

보이다가 11차년도에 47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5차년도에는 56만 8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5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39.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와 '결혼/상제비'가 각각 18.9%와 16.3%로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3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는 11.9%,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한다는 가구의 비중은 8.6%로 나타났다.

〔그림 4-2〕 15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본 소절에서는 따로 사는 가족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LIPS는 4차년도 이후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에 관해 조사해 왔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 부모님

과의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교류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할 뿐,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9차년도 조사부터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과의 교류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가구의 사적 이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던 8차년도 이전 조사와는 달리 9차년도부터는 현금 교류액과 현물 교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표 4-6>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2.8%였고,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71.1%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78.2%, 78.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26.3%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교류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교류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즉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평균 350만 9천 원, 가구주의 배

〈표 4-6〉 15차년도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단위 : 가구, %)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주는 도움
전 체	2,700		2,325		1,995	
없었음	77.2	21.8	79.2	21.1	28.9	73.3
있었음	22.8	78.2	20.8	78.9	71.1	26.3

〈표 4-7〉 15차년도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단위 : 만 원)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주었던 금액
지난해 연간총금액	350.9	190.6	215.0	111.3	359.8	412.6
현 금	296.9	170.1	167.6	93.6	320.3	343.7
현 물	54.0	20.5	47.4	17.7	39.9	68.8

우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1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금액 또한 412만 6천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은 각각 190만 6천 원, 111만 3천 원에 그쳤으며,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359만 8천 원에 그쳐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에게 이전되는 소득이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인 데 반해,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은 결혼자금, 학자금과 같이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대체적으로 현물보다는 현금을 통한 교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액이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액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15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오게 된 동기를 묻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

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2)을 초과하는 4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또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2) 이하의 4층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가 아닌지 재차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15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59.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세 19.2%, 월세 15.1%로 나타났다. 2~15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의 비중이 2차년도 57.2%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9차년도 이후로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13차년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2차년도 38.4%에서 4.1%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반면, 실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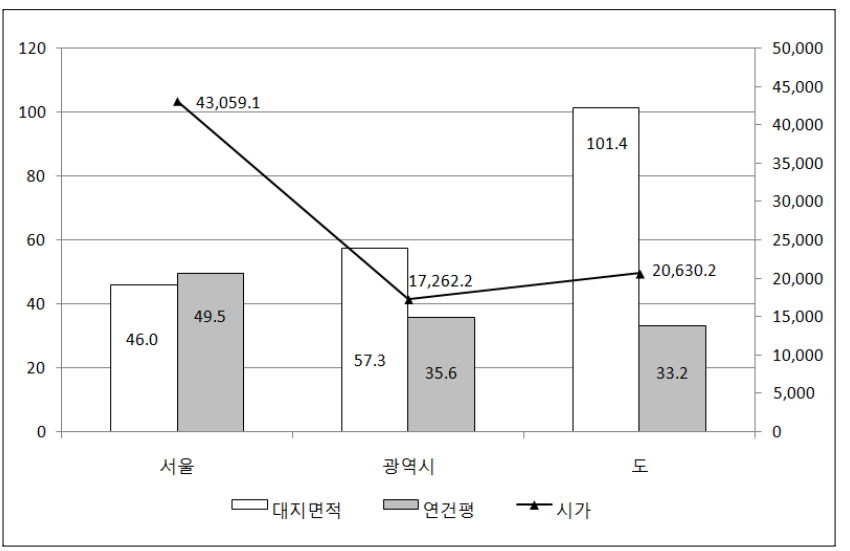
〈표 4-8〉 2~15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49
자 가	57.2	57.3	59.5	60.5	61.6	61.5	61.7
전 세	29.7	30.2	28.4	27.3	23.4	22.5	22.6
월 세	8.7	8.1	7.5	7.2	9.0	10.4	11.1
기 타	4.3	4.4	4.6	5.0	6.0	5.6	4.7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전 체	5,001	5,069	5,116	5,306	5,379	5,403	5,469
자 가	60.9	60.6	60.8	58.8	58.9	59.3	59.3
전 세	22.0	20.8	21.4	22.7	22.5	20.1	19.2
월 세	11.6	12.8	12.5	12.8	12.2	14.2	15.1
기 타	5.6	5.9	5.4	5.7	6.4	6.5	6.4

〔그림 4-3〕 15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 · 연건평 및 시가

(단위 : 평,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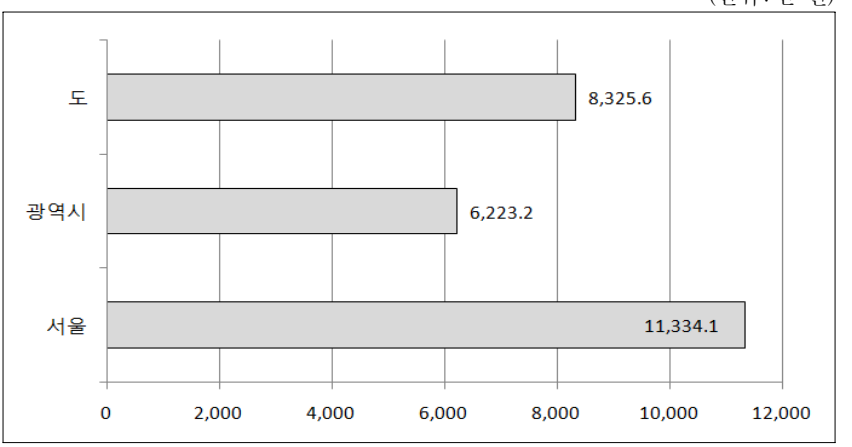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1.4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57.3평, 서울은 46.0평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계한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49.5평인 데 비해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35.6평, 33.2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4억 3,059만 원인 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40.1%에 해당하는 1억 7,262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2억 6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4-4], [그림 4-5]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거주 응답자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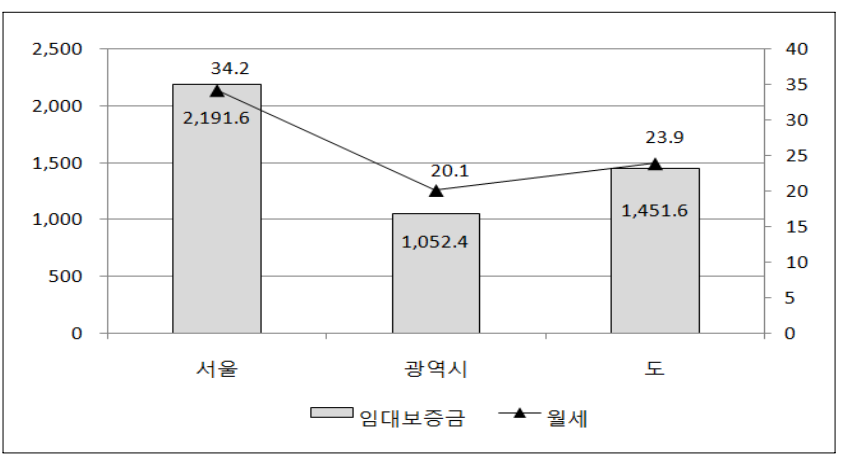
〔그림 4-4〕 15차년도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의 임대보증금

(단위 : 만 원)



〔그림 4-5〕 15차년도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단위 : 만 원)



임대보증금은 1억 1,334만 원으로 광역시(6,223만 원)보다 약 55% 정도 높고, 도 지역(8,326만 원)보다도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월세 거주자의 거주지별 보증금/월세를 살펴보면, 월세는 서울이 월 34.2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타 지역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임대보증금에서는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서울의 월세계약 임대보증금은 평균 2,192만 원으로 광역시(약 2.1배)나 도(약 1.5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2. 주택의 종류

<표 4-9>는 2~15차년도 주택 종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5차년

〈표 4-9〉 2~15차년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49
단독주택	38.4	37.8	38.0	36.5	36.5	34.4	32.6
아파트	33.7	34.7	35.7	37.4	39.8	41.9	43.7
연립주택	7.9	8.0	7.9	7.7	7.5	8.4	8.8
다세대주택	15.2	14.6	11.9	12.2	10.0	10.0	10.9
상가주택	-	-	-	-	-	-	3.4
기 타	4.9	4.8	6.6	6.1	6.2	5.3	0.6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전 체	5,001	5,069	5,116	5,306	5,379	5,403	5,469
단독주택	30.0	29.4	27.6	28.0	26.4	25.9	24.6
아파트	43.8	45.3	46.4	46.8	48.5	48.8	49.0
연립주택	8.5	8.8	9.2	10.7	10.5	10.8	10.8
다세대주택	13.4	11.9	12.5	9.9	10.0	9.6	10.9
상가주택	3.5	3.3	3.4	3.4	3.1	3.5	3.4
기 타	0.9	1.3	0.9	1.2	1.6	1.5	1.4

주 : 상가주택은 8차년도 조사부터 세분화하여 질문한 항목으로, 이전 연도 조사에서는 기타로 분류되어 왔음.

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49.0%를 차지한 아파트이고,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24.6%, 연립주택이 10.8%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8차년도부터 기타에서 분리하여 질문하고 있는 상가주택은 3.4%를 차지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2차년도 33.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차년도에 이르러 15.3% 포인트 증가한 반면, 나머지 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 비중의 감소(1975년 92.6%→2010년 27.3%), 아파트의 비중 증가(1975년 1.9%→2010년 59.0%)라는 추세가 KLIPS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4절 자산 및 부채

본 절에서는 15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고, 소득이나 지출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15차년도의 경우 2011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 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차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곗돈과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곗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자산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15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2.5%로 전년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

〈표 4-11〉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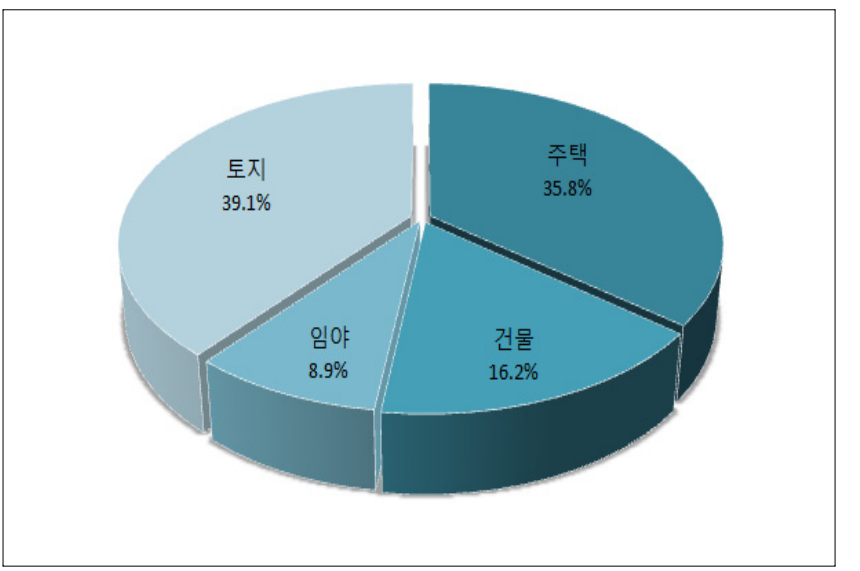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49
부동산 소유 여부							
없 음	78.7	80.0	77.7	77.7	78.7	78.5	76.8
있 음	21.3	20.0	22.3	22.3	21.3	21.5	23.2
1천만 원 미만	8.7	6.2	8.3	5.8	6.8	6.1	4.3
1천~5천만 원 미만	28.9	33.1	27.8	24.0	28.5	21.6	22.2
5천~1억 원 미만	24.2	24.6	26.5	26.4	19.0	18.9	18.1
1억~3억 원 미만	28.4	26.3	26.6	31.1	28.8	30.2	32.0
3억~5억 원 미만		5.2	4.4	6.0	7.2	9.5	10.1
5억~10억 원 미만	3.6	2.3	2.8	4.0	5.9	7.3	7.6
10억 원 이상	1.5	1.3	1.7	1.8	2.9	3.3	4.4
잘 모르겠음	4.7	1.0	2.0	0.8	0.9	3.2	1.4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전 체	5,001	5,069	5,116	5,306	5,379	5,403	5,469
부동산 소유 여부							
없 음	76.1	75.9	75.8	76.6	77.7	78.1	77.5
있 음	23.9	24.1	24.2	23.4	22.3	21.9	22.5
1천만 원 미만	3.0	4.2	3.1	3.0	2.9	2.6	1.7
1천~5천만 원 미만	19.0	15.7	16.8	14.2	14.1	10.7	14.4
5천~1억 원 미만	18.3	20.5	17.6	20.4	17.5	18.4	17.7
1억~3억 원 미만	34.3	30.8	32.2	33.1	36.1	34.0	32.6
3억~5억 원 미만	10.8	10.9	12.2	12.7	13.4	15.0	16.4
5억~10억 원 미만	8.7	9.7	11.0	9.2	10.7	12.7	10.7
10억 원 이상	4.8	7.7	7.1	7.3	5.2	6.7	6.5
잘 모르겠음	1.1	0.5	0.1	0.1	0.1	-	0.0

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가 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15차년도의 경우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6%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2차년도에 1.5%에서 10차년도에는 7.7%로 가장 높았으나, 15차년도에는 6.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3차년도와 4차년도에 각각 7.5%, 7.2%에 그치던 것이 5차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12차년도에 감소(11차년도 대비 1.3%포인트)한 후 다시 증가하여 15차년도에는 27.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6]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토지로 전체 응답 중 3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주택이 35.8%, 건물이 16.2%, 임야가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15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주 : 이 항목은 복수 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2. 금융자산

<표 4-12>를 통해서 15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15차년도 63.7%로 지난 14년 동안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7차년도와 11차년도를 제외하고는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5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2,21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493	4,243	4,200	4,276	4,575	4,737	4,794
없음	28.8	35.0	34.1	33.6	36.5	38.9	34.5
250만 원 미만	15.6	12.7	14.7	12.4	11.8	12.0	10.8
250만~500만 원	8.6	7.5	6.0	5.6	5.3	5.7	5.6
500만~1,000만 원	12.7	12.5	12.3	11.4	10.6	9.6	11.2
1,000만~5,000만 원	27.9	26.1	25.5	27.8	27.4	24.8	27.9
5,000만~1억 원	4.4	4.1	4.4	6.2	4.8	5.4	5.8
1억 원 이상	2.0	2.1	3.1	3.0	3.6	3.7	4.2
평 균(만 원)	1,347	1,395	1,508	1,602	1,696	1,674	1,908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전 체	4,975	5,023	5,116	5,267	5,379	5,403	5,423
없음	37.9	34.4	41.1	40.4	39.3	37.4	36.3
250만 원 미만	9.9	11.0	6.9	5.9	5.7	6.1	5.6
250만~500만 원	6.1	5.8	4.7	4.1	4.3	4.2	4.1
500만~1,000만 원	10.0	11.1	10.1	9.6	9.6	9.7	8.9
1,000만~5,000만 원	30.0	26.5	26.8	28.7	28.5	29.0	31.7
5,000만~1억 원	5.6	6.4	5.8	6.3	7.1	7.7	8.0
1억 원 이상	4.6	5.0	4.5	4.9	5.6	5.8	5.5
평 균(만 원)	1,939	2,104	2,081	2,098	2,222	2,304	2,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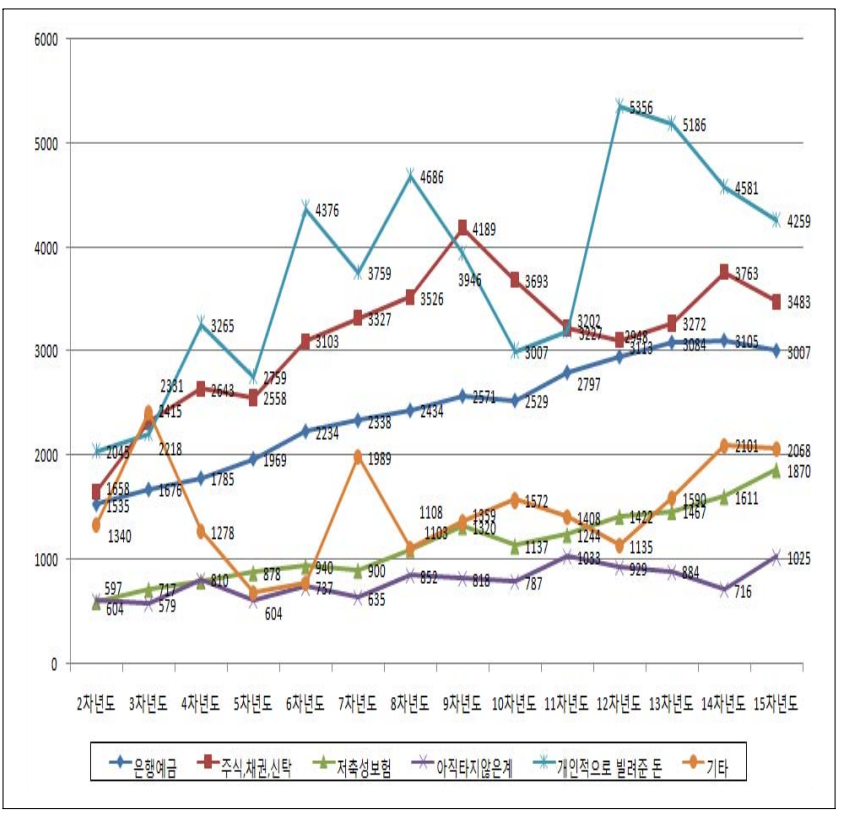
주 : 금융자산 시가 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15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31.7%로 가장 높았고, 2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5.6%, 250만~5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4.1%, 500만~1,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자산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그림 4-7]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속되어 완만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개

〔그림 4-7〕 2~15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 금액 추이

(단위 : 만 원)



주 :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7~9차년도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던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의 비중은 10차년도와 11차년도에서 감소한 후 12차년도부터 다시 증가하였으나 15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280만 원 감소한 3,483만 원이었다.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은 여전히 은행예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연도별로 증가하다가 11차년도부터 감소하였고, 14차년도에 다시 차이를 보이다가 15차년도에는 차이가 줄어들었다. 2차년도에는 주식/채권/신탁이 1,658만 원으로 은행예금(1,535만 원)보다 123만 원 정도 높았지만, 이후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면서 9차년도에는 1,618만 원으로 가장 커졌다. 그러나 12차년도에는 은행예금이 2,948만 원으로 주식/채권/신탁(3,113만 원)과의 차이가 165만 원으로 가장 작았으나, 이후에 격차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저축성보험금과 곗돈의 경우에는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구의 부채

15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4.5%를 차지하여 2차년도 조사(50.7%) 당시보다 약 6.2%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반면 평균 부채 잔액은 2차년도 1,841만 2천 원이던 것이 3차년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 15차년도에는 4,511만 1천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에는 49.3%였다가 3차년도에 53.2%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0차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3차년도에는 56.7%로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15차년도에는 55.5%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 잔액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차년도에는 1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부채 잔액 분포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490	4,259	4,224	4,281	4,581	4,741	4,828
부채 없음	49.3	53.2	50.3	49.9	49.7	49.4	48.4
500만 원 미만	7.4	5.7	6.0	5.6	4.6	3.8	4.5
500만~1천만 원 미만	7.1	6.2	6.5	6.1	5.6	4.9	4.4
1천만~5천만 원 미만	26.2	26.1	26.5	26.3	25.2	24.9	25.1
5천만~1억 원 미만	6.2	6.0	6.7	7.0	8.4	9.5	9.0
1억 원 이상	3.8	2.8	4.1	5.2	6.5	7.6	8.7
평 균(만 원)	1,841.2	1,741.4	1,816.1	2,119.7	2,580.1	2,712.8	2,970.3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전 체	4,988	5,046	5,105	5,271	5,377	5,385	5,452
부채 없음	47.3	48.0	51.7	51.1	56.7	56.0	55.5
500만 원 미만	4.5	3.9	3.0	4.8	2.3	2.6	2.5
500만~1천만 원 미만	4.5	4.5	4.2	3.6	3.3	3.4	2.9
1천만~5천만 원 미만	23.8	22.3	21.1	20.2	17.4	17.6	17.9
5천만~1억 원 미만	10.2	10.9	9.5	9.1	8.4	7.8	8.6
1억 원 이상	9.7	10.4	10.4	11.2	12.0	12.5	12.7
평 균(만 원)	3,231.0	3,645.22	3,592.0	3,661.8	3,872.7	4,058.5	4,511.1

주 : 가구의 부채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제5절 자녀 교육비

KLIPS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다섯 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로까지 확대 조사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 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등록금 외 지출비용 중 취업준비 등을 위한 사교육비를 따로 묻고 있다.

우선 각 가구의 자녀의 유무와 자녀 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5%였고, 2명인 경우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5.9%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7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6만 1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7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69.1%에 달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구의 대부분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251만 원의 교육비

〈표 4-14〉 15차년도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단위 : %)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있음	30.5	대학생 이상 자녀 유무	있음	15.9
	없음	69.5		없음	84.1
고등학생 이하 자녀 수	1명	45.3	대학생 이상 자녀 수	1명	73.8
	2명	47.6		2명	25.6
	3명 이상	7.1		3명 이상	0.6

〈표 4-15〉 15차년도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단위 : 가구, %, 만 원)

		고등학생 이하 자녀 (월평균)	대학생 이상 자녀 (연평균)
(사)교육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26.4	59.5
	약간 부담된다	42.7	27.4
	보통이다	21.3	10.2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6.3	2.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3.2	0.4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56.1	1,250.6 (672.2)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35.7	985.6 (529.7)

주 : 괄호 안의 값은 연간 정규학교 등록금임.

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당 연평균 98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총 교육비 중 정규학교 등록금만 살펴보면, 가구당 연평균 672만 2천 원, 자녀당 연평균 529만 7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보다도 많은 86.9%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59.5%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는 정규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15년도 제15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1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과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1절 경제활동상태

<표 5-1>은 1~15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된 개인 원표본 사례 수 추이를 제시하였다.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원표본 개인에 대해서만 0을 초과하는 값이 부여되므로, 이 표는 종단면 가중치를 0보다 크게 부여받은 개인 표본 수다. 조사 초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 원표본 사례 수도 급격히 줄었으나 그 이후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횡단면 가중치는 조사 원칙에 따라 조사된 모든 개인 표본에 부여되므로 개인 원표

〈표 5-1〉 1~15차년도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

(단위 : 명)

		전 체	개인 자료	신규 자료
1차년도		13,321	13,321	-
2차년도		11,708	11,236	472
3차년도		10,797	10,494	303
4차년도		10,500	10,268	232
5차년도		10,296	10,073	223
6차년도		10,658	10,382	276
7차년도		10,695	10,451	244
8차년도		10,522	10,314	208
9차년도		10,591	10,378	213
10차년도		10,590	10,372	218
11차년도		10,411	10,183	228
12차년도		10,356	10,168	188
13차년도		10,133	9,951	182
14차년도		9,877	9,715	162
15차년도	종단사례 수	9,861	9,685	176
	횡단사례 수	11,428	11,108	320

주 : 1) 1~1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 수. 15차년도 종단 분석도 동일하게 계산. 15차년도 횡단 분석 사례 수는 횡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 수임.
2)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본보다 많은데, 15차년도의 경우 1,567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2009년 추가표본 사례 수는 포함시키지 않고 1998년 원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19]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이 있는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

19) 조사일 바로 전 주(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이 조사 대상 기간이다.

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일이 있는 주 일자리를 구해 조사 당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류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적용하였다.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를 요약하였다. 먼저 취업자

〈표 5-2〉 1~15차년도 경제활동상태 비교

(단위 :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년도	48.3 (48.3)	7.6 (9.4)	44.1 (42.3)
2차년도	51.7 (51.7)	3.8 (4.5)	44.5 (43.8)
3차년도	51.3 (51.3)	2.4 (2.9)	46.3 (45.8)
4차년도	52.3 (52.3)	2.1 (2.6)	45.6 (45.2)
5차년도	53.8 (53.8)	2.0 (2.3)	44.2 (43.9)
6차년도	53.3 (53.3)	2.4 (2.8)	44.3 (44.0)
7차년도	53.2 (53.2)	2.6 (3.1)	44.2 (43.8)
8차년도	52.7 (52.7)	2.7 (3.2)	44.5 (44.1)
9차년도	52.9 (52.9)	2.6 (3.0)	44.6 (44.1)
10차년도	52.7 (52.7)	2.2 (2.6)	45.1 (44.7)
11차년도	52.8 (52.8)	1.6 (1.9)	45.6 (45.3)
12차년도	52.7 (52.7)	2.3 (2.5)	45.0 (44.8)
13차년도	53.5 (53.5)	1.4 (1.7)	45.1 (44.8)
14차년도	54.0 (54.0)	1.3 (1.6)	44.7 (44.4)
15차년도	53.4 (53.4)	1.4 (1.8)	45.2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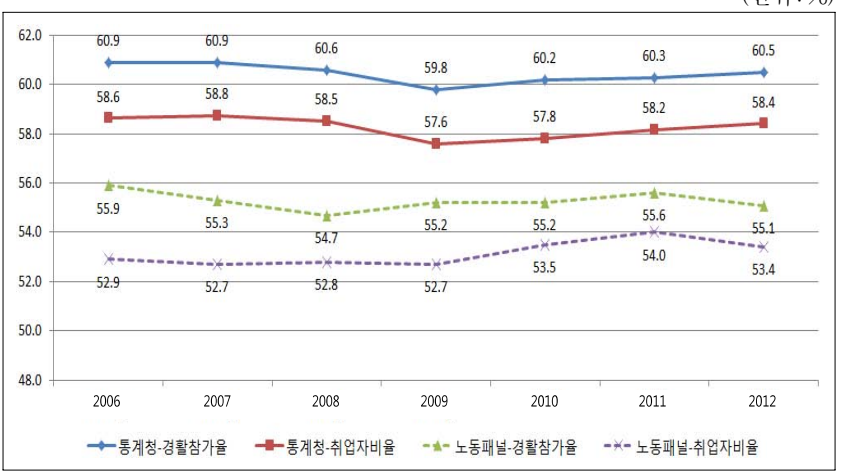
주 : 1) ILO 기준 실업자 정의. 괄호 안은 OECD 기준 실업자 정의.
2) 합쳤을 때 100.0이 안 되거나 넘는 경우는 모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들임.
3) 비중은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00.0이 되도록 계산되어 있으므로, 실업자는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 비중이지 실업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4)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
5)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48.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6차년도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등락을 거듭하며 15차년도의 경우 53.4%로 조사되었다. 실업자[20]의 비중은 5차년도까지 하락하였다가 6차년도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 12차년도에 2.3%를 기록하였다가 13차년도 이후 하락해 15차년도에는 1.4%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5차년도 현재 45.2%를 기록했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지난 7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인구비

〔그림 5-1〕 최근 7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2006~12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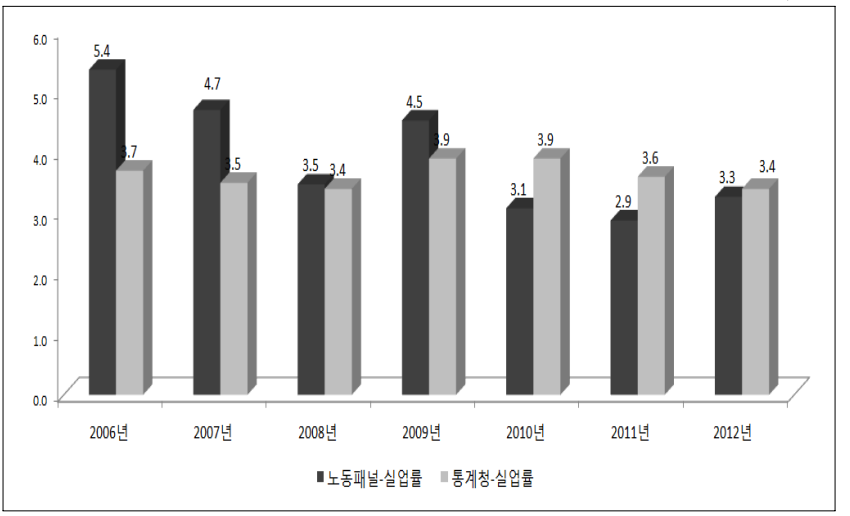


주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3) 취업인구비율＝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4) 실업자를 OECD 정의에 근거해 산출했을 경우 계산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
5)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6)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20) 현재 공식 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CE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 기준은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OECD 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OECD 기준으로 실업률을 공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가능하다.

〔그림 5-2〕 최근 7년간 실업률 비교(2006~12년)

(단위 : %)



주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조사」, 비농가부문임.
2) 실업률 = 실업자(OECD 정의)/경제활동인구 × 100.
3)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4)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율)과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은 약 5%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실업률은 0.1%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2절 취업자의 특성

<표 5-3>과 <표 5-4>는 산업별로 KLIPS와 경활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KLIPS에서도 경활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산업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산업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활조사보다 농림어업 비중이 낮은 것은, KLIPS 원패널은 도시가구를 대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2년)

(단위 :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년	9.3	21.4	69.4
1999년	8.7	22.5	68.9
2000년	8.2	22.8	69.0
2001년	7.4	21.4	71.2
2002년	6.6	21.2	72.2
2003년	6.4	20.8	72.9
2004년	5.8	19.9	74.3
2005년	5.7	20.4	74.0
2006년	5.3	21.0	73.8
2007년	5.4	20.4	74.3
2008년	5.2	19.9	74.9
2009년	5.2	17.6	77.2
2010년	5.0	18.0	77.1
2011년	5.0	18.4	76.6
2012년	4.8	18.2	77.0

주 :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 적용함.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8년 이전은 제8차, 2009년에서 2012년은 제9차 분류기준에 따름. 2008년 이전과 2009년 이후는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 연결이 안 됨.
3) 1차 산업 :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 산업 : 광업 및 제조업을 포함.
3차 산업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9차 분류에 따라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도 포함.
4)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기.
5)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6)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표 5-5>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종사자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사무직, 생산직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은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보면 전문관리직은

〈표 5-4〉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2년)

(단위 :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년	12.0	19.7	68.2
1999년	11.3	19.9	68.7
2000년	10.6	20.4	69.0
2001년	10.0	19.9	70.2
2002년	9.3	19.2	71.5
2003년	8.8	19.1	72.1
2004년	8.1	19.1	72.8
2005년	7.9	18.6	73.5
2006년	7.7	18.1	74.2
2007년	7.4	17.7	75.0
2008년	7.2	17.4	75.4
2009년	7.0	16.4	76.6
2010년	6.6	17.0	76.4
2011년	6.4	16.9	76.7
2012년	6.2	16.7	77.1

주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1998~99년은 제6차, 2000~08년은 제8차, 2009년 이후는 제9차 분류기준에 따르므로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 연결이 안 됨.

1998년 당시 20.8%를 차지하였으나, 이 비중이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8년에는 28.6%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1999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1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산직은 1998년 30.3%였다가 2008년 32.0%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서비스판매직은 1998년 25.5%에서 감소 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20.5%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농림어업직(1998년 9.4% →2008년 5.1%)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9차 분류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은 약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직업별 분포를 <표 5-6>에 제시된 경활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2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년	20.8	14.0	25.5	9.4	30.3
1999년	20.9	10.7	24.4	8.5	35.6
2000년	21.5	11.1	23.3	8.1	36.1
2001년	22.0	12.1	23.7	7.3	34.9
2002년	23.4	12.3	23.2	6.4	34.7
2003년	25.1	12.7	22.1	6.3	33.8
2004년	26.1	13.5	21.2	5.8	33.4
2005년	27.2	13.7	20.7	5.6	32.9
2006년	27.4	14.6	19.9	5.2	33.0
2007년	28.5	13.8	20.0	5.3	32.5
2008년	28.6	13.8	20.5	5.1	32.0
2009년	23.2	16.0	22.3	4.9	33.7
2010년	24.3	15.8	21.7	4.7	33.4
2011년	23.8	15.7	22.2	4.7	33.5
2012년	24.6	15.8	22.2	4.5	32.9

주 :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 적용함.
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1998~2008년은 제5차, 2009~12년은 제6차 분류기준에 따름. 2008년 이전과 2009년 이후는 시계열 연결이 안 됨.
3)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
4)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5)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타났다.

이제 15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5-7>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타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광공업(21.0%)에, 여성의 경우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7.2%)에 많이 종사하

〈표 5-6〉 경활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2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년	18.8	12.4	23.6	11.5	33.7
1999년	19.1	11.3	23.7	10.7	35.1
2000년	18.6	11.9	26.0	10.0	33.5
2001년	19.0	12.4	26.2	9.4	33.0
2002년	19.2	12.7	26.1	8.9	33.0
2003년	20.1	14.3	25.2	8.3	32.2
2004년	20.5	14.1	25.0	7.5	32.8
2005년	20.9	14.3	24.6	7.5	32.7
2006년	21.6	14.2	24.1	7.2	32.9
2007년	22.2	14.1	23.8	3.9	33.0
2008년	22.4	14.9	23.5	6.7	32.6
2009년	21.2	15.3	23.4	6.5	33.7
2010년	21.5	15.7	22.5	6.0	34.2
2011년	21.5	16.5	22.1	5.9	34.1
2012년	21.3	16.6	22.5	5.8	33.8

주 : 1)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5차,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단, 연도별 비교를 위해 제4차 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중에서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시함.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에는 60세 이상(21.5%)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금융부동산업에서도 60대 연령층(10.5%)이 좀 더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반면, 기타서비스업에서 20대는 거의 절반 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금융 및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고졸 및 고졸 미만은 광공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고루 분포한 반면, 고졸 이상 학력에서는 기타서비스업에 몰려 있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대졸 이상은 기타서비스업에 절반 이상이 분포해 있었다.

〈표 5-7〉 15차년도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단위 :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숙박	금융 부동산	공공 행정	기타 서비스	전 체
성별	남 성	4.9	21.0	11.8	17.2	7.8	4.1	33.3	100.0
	여 성	5.0	14.6	1.5	27.2	7.2	2.5	42.1	100.0
연령	15~29세	0.1	18.7	2.0	24.3	5.0	2.0	48.0	100.0
	30~39세	1.1	20.9	6.7	17.1	7.5	5.3	41.5	100.0
	40~49세	1.6	20.1	8.3	23.6	7.4	3.5	35.6	100.0
	50~59세	4.8	19.7	9.1	22.2	7.2	2.9	34.1	100.0
	60세 이상	21.5	8.2	8.4	19.3	10.5	2.9	29.2	10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16.6	17.3	10.1	23.1	5.4	2.4	25.0	100.0
	고 졸	3.0	23.0	8.6	27.9	7.7	2.3	27.5	100.0
	대재 중퇴	1.0	11.9	8.0	22.7	4.7	8.6	43.1	100.0
	전문대졸	1.5	19.4	5.2	20.9	8.7	2.4	42.1	100.0
	대졸 이상	1.2	13.8	5.3	12.3	8.4	5.3	53.8	100.0

주 : 1) 기타서비스업은 3차 산업 중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2)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표 5-8>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에서는 서비스판매직에서는 여성(31.4%)이 남성(16.5%)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생산직의 경우에는 남성(42.3%)이 여성(23.5%)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반면, 40대·50대·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생산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농림어업직(19.8%)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의 종사자가 겨우 1.8%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은 이 비중이 5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직에는 고졸 미만의 경우 55.1%인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9.0%만이 위치하고 있었다.

〈표 5-8〉 15차년도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단위 : %)

		전문 관리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생산직	전 체
성별	남 성	22.9	13.6	16.5	4.8	42.3	100.0
	여 성	23.8	17.0	31.4	4.3	23.5	100.0
연령	15~29세	37.0	21.1	26.0	0.1	15.8	100.0
	30~39세	37.1	23.0	17.2	0.8	22.0	100.0
	40~49세	22.5	16.6	24.5	1.3	35.0	100.0
	50~59세	14.5	10.3	25.1	4.7	45.4	100.0
	60세 이상	9.2	3.9	21.0	19.8	46.1	10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1.8	1.8	26.1	15.2	55.1	100.0
	고 졸	7.7	11.1	29.6	2.9	48.7	100.0
	대재 중퇴	29.1	19.3	27.2	0.8	23.5	100.0
	전문대졸	30.3	21.9	21.8	1.4	24.7	100.0
	대졸 이상	53.0	25.3	11.8	0.9	9.0	100.0

주 : 1) 전문관리직은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포함하며, 서비스판매직은 서비스종사자 및 판매종사자를 포함하고, 생산직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하며, 군인은 제외하였음.
2)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제3절 미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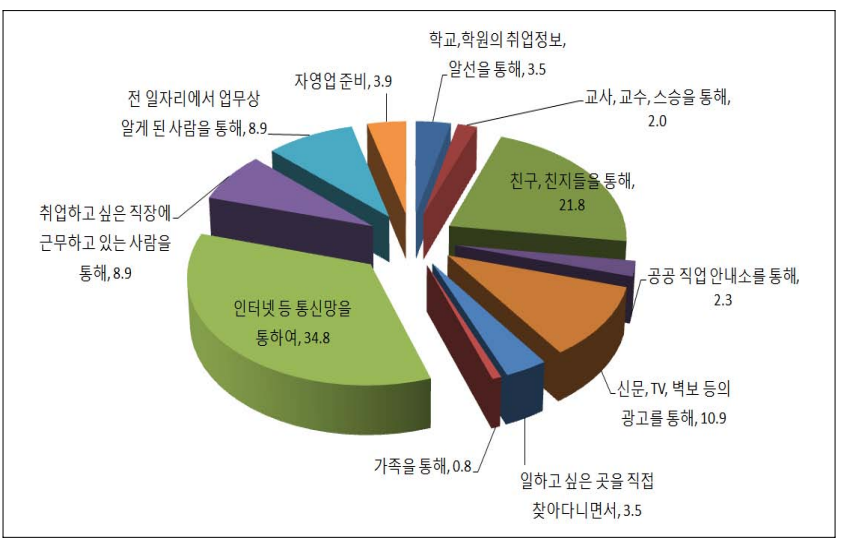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와 연관된다. 15차년도 KLIPS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5-3]은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34.8%를 차지하였으며, 친구·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은 21.8%를 차지했다.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10.9%,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와 취업하고 싶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각각 8.9% 순이었다.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중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자.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21]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

〔그림 5-3〕 15차년도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주 :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21) 이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으로는 가족·친구·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다.

<표 5-9>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15차년도 들어 남성보다는 여성의 공식적 방법 사용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젊은 층일수록 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50대 이상은 비공식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비공식적 방법이라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식적 방법에의 의존이 줄고 비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적 방법을 활

〈표 5-9〉 15차년도 특성별 구직방법

(단위 :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전 체
성 별	남 성	51.7	42.7	5.7	100.0
	여 성	61.7	37.6	0.6	100.0
연 령	15~29세	76.8	20.7	2.6	100.0
	30~39세	79.3	20.7	0.0	100.0
	40~49세	46.2	50.1	3.7	100.0
	50~59세	20.6	66.8	12.7	100.0
	60세 이상	21.4	76.5	2.1	10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42.0	55.7	2.3	100.0
	고 졸	43.9	49.3	6.9	100.0
	대재 중퇴	81.7	18.4	0.0	100.0
	전문대졸	70.8	24.9	4.4	100.0
	대졸 이상	64.4	35.7	0.0	100.0

주 :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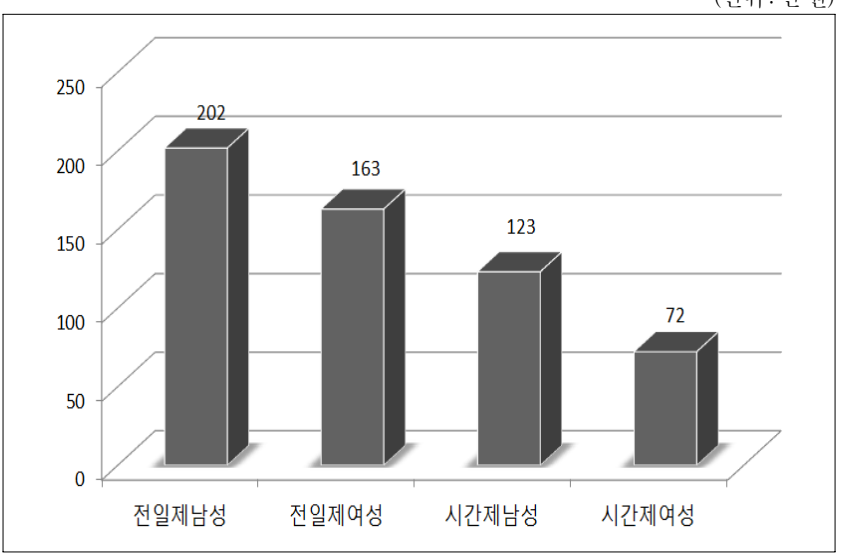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희망임금,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5-4]에서 구직자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임금수준에 대해 성별·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202만 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이 163만 원을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것에는 남성이 123만 원을, 여성이 72만 원을 희망하였다.

<표 5-10>에서는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표에는 이와 관련된 아홉 가지 항목

〔그림 5-4〕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단위 : 만 원)



주 :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

(단위 : 점)

	남 성	여 성	전 체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2.0	2.2	2.1
2.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2.5	2.7	2.6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0	3.3	3.1
4. 경험이 부족하다.	3.1	3.1	3.1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3	2.3	2.3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2.8	3.2	3.0
7. 나이가 너무 많다.	3.0	2.9	3.0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9	2.1	1.9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3.3	3.3

주 : 1)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 점수임.
2) 설문지상의 응답 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3) 1~15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평균 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로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업자금이 부족' 항목에 대해 평균 1.9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2.1) 및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음'(2.3점)을 각각 지적하였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사업자금 부족, 일자리 자체의 부족,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 부족 등의 정보 부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수급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표 6-1>은 1~15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수를 제시한다. 표본 수를 제외하고 모든 표의 수치들은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15차년도에는 전체 4,599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다. 취업자 대비로 볼 때 1차년도 62.4%에서 꾸준히 늘어 7차년도에는 취업자의 68.1%가 임금근로자였으나, 8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66.2%에 그쳤다. 그러나 다시 9차년도부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14차년도에는 71.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5차년도도 같은 수치로 71.6%가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

(단위 :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 수	남성	여성	
1차년도	4,010	62.9	37.1	62.4
2차년도	3,967	60.0	40.0	63.9
3차년도	3,742	60.9	39.1	64.8
4차년도	3,843	60.1	39.9	66.5
5차년도	3,975	59.6	40.4	67.2
6차년도	4,211	59.4	40.6	68.1
7차년도	4,257	59.5	40.5	68.1
8차년도	4,085	60.1	39.9	66.2
9차년도	4,300	60.2	39.8	67.9
10차년도	4,346	59.9	40.1	68.2
11차년도	4,340	59.5	40.5	68.7
12차년도	4,363	59.0	41.0	69.1
13차년도	4,484	57.9	42.1	70.4
14차년도	4,535	57.7	42.3	71.6
15차년도	4,599	56.3	43.7	71.6

주 : '표본수'를 제외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절에서는 15차년도(2012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본다. 본 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표본 4,599명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다. 또한 1~15차년도의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도 제시한다.

먼저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자의 비중이 2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대졸자로 24.3%였다. 여성의 경우는 고졸 미만과 고졸, 전문대졸 이하에서 전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2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30대가 24.5%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는 40대뿐만 아니라 20대에서 특히 높은 비중(21.9%)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 시기가 빠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등 일시적으로 노동공급이 중단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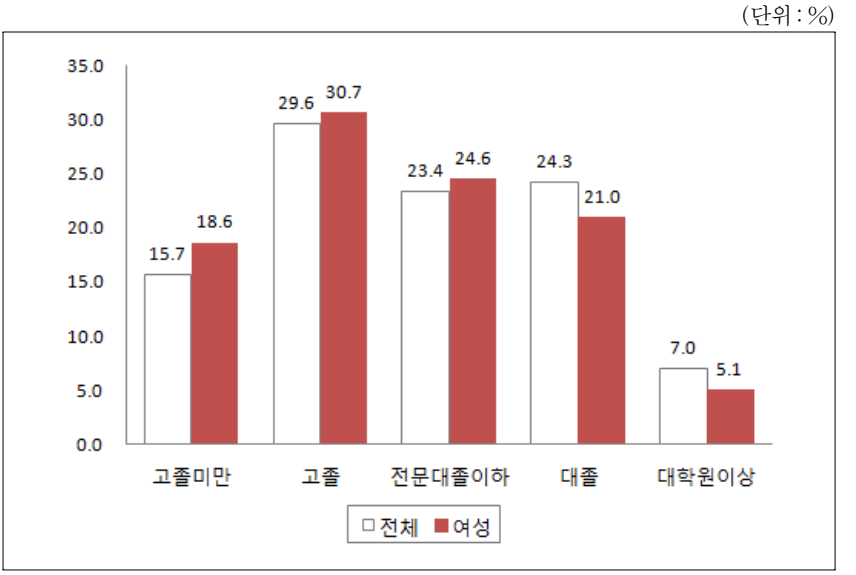
산업별 분포를 보면, 기타서비스업이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광공업(21.2%)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0.6%로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광공업 비중이 2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순이었다. 여성은 기타서비업이 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도소매 및 음식점업 광공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녀의 업종별 임금근로자 비중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종에 따라서는 생산직이 37.0%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26.5%)이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전문관리직(27.7%), 생산직(26.7%), 서비스직(24.9%) 순으로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이 3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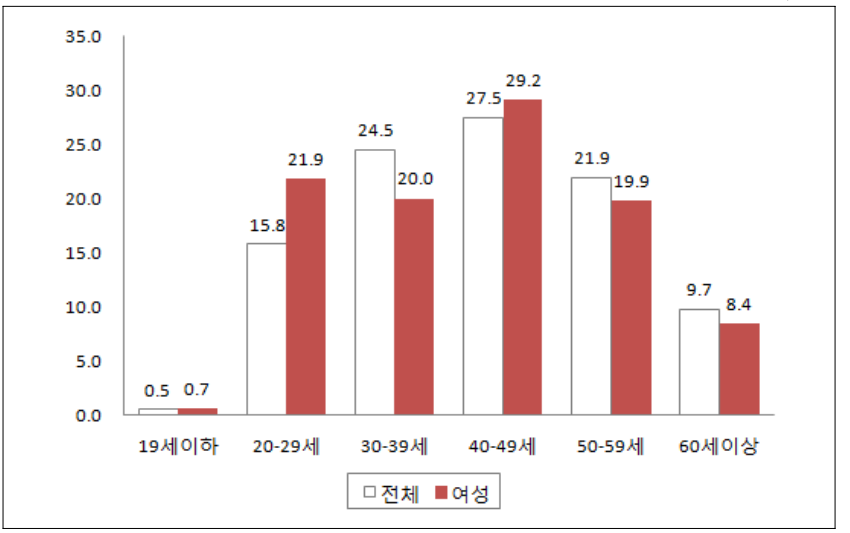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2012년)

(단위 : %)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2012년)

(단위 : %)



500인 이상(19.3%)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전체 분포에 비해 10인 미만(36.3%)에 더 많이 분포해 있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다수가 민간회사(76.9%)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부기관(8.8%)이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대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8.3%였고, 남성(10.9%)이 여성(4.9%)보다 많았다. 교대제를 할 경우 대부분이 맞교대제(2조 2교대제)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3.2%, 임시·일용직이 26.9%였다. 통계청의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37.3%인 것으로 나타났다.[22] 이와 같이 KLIPS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 수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퇴직금의 유무 등 부가급여를 받는지 등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KLIPS의 경우는 기간 이외의 다른 것을 분류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22) 한국노동연구원(2013), 『2013 KLI 노동통계』.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2012년)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산 업	농림어업	0.8	0.8	0.8
	광공업	21.2	25.0	16.3
	건설업	8.7	14.1	1.6
	전기·가스 및 수도업	0.6	0.8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4	11.9	22.3
	운수통신업	8.3	11.2	4.5
	금융 및 부동산업	7.8	8.4	7.0
	공공서비스업	4.8	5.9	3.4
	기타서비스업	31.5	21.9	43.9
직 종	전문관리직	26.5	25.6	27.7
	사무직	18.9	17.5	20.6
	서비스직	17.3	11.4	24.9
	농림어업직	0.3	0.5	0.0
	생산직	37.0	45.0	26.7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0.5	26.2	36.3
	10~29인	19.8	19.9	19.8
	30~99인	16.5	17.0	15.8
	100~299인	10.4	11.8	8.5
	300~499인	3.5	3.5	3.6
	500인 이상	19.3	21.7	16.1
기업형태	민간회사	76.9	77.6	75.9
	외국인회사	0.7	0.9	0.5
	공기업	5.3	5.4	5.1
	법인단체	5.0	3.9	6.4
	정부기관	8.8	8.3	9.5
	비소속	2.5	2.8	2.1
	기 타	0.8	1.1	0.4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함	91.7	89.1	95.1
	2조 2교대제	4.6	6.4	2.1
	3조 3교대제	1.8	2.1	1.4
	기타 교대제	1.9	2.4	1.3
종사상 지위	상용직	73.2	77.5	67.5
	임시직	17.0	11.3	24.2
	일용직	9.9	11.1	8.3

주 :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상용직과 일용직 비중이, 여성은 남성보다 임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장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용직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건설업의 경우 산업특성상 남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제2절 근로시간

제15차년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이 종료되며,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게 된다. 또한 초과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방식,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1. 평균 근로시간

우선 평균 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평균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표 6-3>을 보면 1998년 임금근로자들은 52.3시간을 근무하였으나, 15차년도인 2012년에는 45.1시간을 근무하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차년도, 13차년도를 제외하면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

〈표 6-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

	평균 근로시간	전년 대비 증가율
1차년도	52.3 (0.005)	-
2차년도	52.7 (0.005)	0.9
3차년도	52.2 (0.005)	-0.9
4차년도	51.0 (0.005)	-2.3
5차년도	50.9 (0.005)	-0.2
6차년도	50.4 (0.005)	-0.9
7차년도	49.9 (0.005)	-1.1
8차년도	49.3 (0.005)	-1.1
9차년도	48.6 (0.005)	-1.4
10차년도	48.5 (0.005)	-0.3
11차년도	48.1 (0.005)	-0.8
12차년도	46.3 (0.005)	-3.7
13차년도	46.4 (0.005)	0.2
14차년도	45.8 (0.006)	-1.2
15차년도	45.1 (0.005)	-1.7

주 : 1)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임.
2) 증가율은 {(해당 연도－전년도)/전년도}×100으로 계산.
3) 근로시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결측 처리함.
4)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7.1시간)이 여성(42.4시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당 4.7시간을 더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45.8시간, 45.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10대가 40.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은 10대와 60대처럼 노동시장 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연령대를 제외하면 30대에서 가장 격차가 컸는데,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60세 여성의 근로시간은 50대에서 가장 길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30대에서 가장 길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고졸 이상 학력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은 주당 근로시간이 46.8시간으로 학력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2012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전 체		45.1	47.1	42.4
연령별	19세 미만	40.8	43.6	38.3
	20~29세	44.3	46.7	42.7
	30~39세	45.8	48.0	42.0
	40~49세	45.2	47.4	42.7
	50~59세	45.4	46.7	43.3
	60세 이상	43.6	46.0	39.6
학력별	고졸 미만	44.3	46.0	42.6
	고 졸	46.8	49.2	43.9
	전문대졸 이하	44.7	47.7	41.2
	대 졸	44.4	45.8	42.1
	대학원 이상	43.3	45.0	39.5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2012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상용직	46.8	48.2	44.8
임시직	40.9	46.6	37.5
일용직	39.5	40.7	37.4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별 근로시간 중 가장 긴 데 반해, 대졸자는 44.4시간,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43.3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졸 미만은 44.3시간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46.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성별로 보아도 상용직인 남성이 48.2시간, 여성이 44.8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임시직인 경우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9시간으로 상용직보다 5.9시간가량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2012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직종별	전문관리직	42.7	44.7	40.4
	사무직	43.6	45.6	41.5
	서비스직	46.5	50.2	44.3
	농림어업직	42.3	42.4	40.0
	생산직	46.9	48.5	43.3
산업별	농림어업	42.2	43.1	41.0
	광공업	47.6	48.5	46.0
	건설업	43.6	43.7	41.5
	전기·가스 및 수도업	44.9	47.5	35.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7.4	50.4	45.4
	운수통신업	46.9	48.4	42.1
	금융 및 부동산업	46.0	48.8	41.5
	공공서비스업	42.5	45.2	36.4
	기타서비스업	42.3	45.5	40.2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45.5	47.8	43.4
	10~29인	45.6	47.5	43.0
	30~99인	46.4	48.1	43.9
	100~299인	47.3	49.5	43.2
	300~499인	45.1	46.2	43.7
	500인 이상	45.2	46.4	42.9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산업별[23]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7.4시간으로 가장 긴 반면 공공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은 각각 42.5시간, 42.3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5시간 정도다. 광공업과 운수통신업의 근로시간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47.6, 46.9시간 주평균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차이가 가장 많

23) 산업표준분류 9차 개정

은 업종은 전기·가스 및 수도업, 공공서비스업, 금융 및 부동산업으로 이들 업종은 남성이 여성의 주평균 근로시간보다 7시간 이상 긴 것을 알 수 있다.

직종별로는 생산직과 서비스직이 각각 46.9시간, 46.5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록했으며, 전문관리직이 42.7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근로시간을 보였다. 성별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직종은 서비스직으로 남성 50.2시간, 여성 44.3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6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47.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남녀 근로시간 차이는 이들 규모에서 가장 차이가 커서 남성 49.5시간, 여성 43.2시간으로 6.4시간 정도 남성의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과 50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45.1시간, 45.2시간으로 가장 짧은 평균 근로시간을 나타냈고, 이들 규모에서는 남녀 근로시간 차이가 각각 2.4시간, 3.4시간 남성의 근로시간이 더 긴 것임을 알 수 있다.

2. 초과근로시간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표 6-7>과 같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5차년도에 26.0%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9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60.7%로 나타났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에 따라 결정'(84.2%)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12.7%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약 1만 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2012년)

(단위 : %)

초과근로를 안 함			74.0
초과근로를 함			26.0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8.9
	초과급여 지급 안 함		39.3
	초과급여 지급함		60.7
	초과 급여 지급 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84.2
		일정 금액	12.7
		기준 없음	3.0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천 원)	10.8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제3절 임 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 지급주기, 임금 산정방식, 임금수준, 성과급 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그리고 임금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에 대하여 종사상 지위,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표 6-8>을 통해 임금 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5.3% 정도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일 지급받는다'와 '수시로 지급받는다'의 응답은 각각 2.9%, 1.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지급주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4.0%)과 여성(96.9%)의 대부분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2012년)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 지급주기	한 달	95.3	94.0	96.9
	보름/주	0.4	0.4	0.3
	매 일	2.9	3.4	2.1
	수 시	1.4	2.1	0.6
	기 타	0.0	0.0	0.0
임금 산정방식	연봉계약제	10.4	13.3	6.6
	월 급	77.3	74.3	81.3
	주급/격주	0.1	0.1	0.1
	일 당	6.9	8.9	4.2
	시간급제	2.5	1.1	4.4
	도급제	0.4	0.3	0.5
	실적급	2.2	1.9	2.7
	기 타	0.1	0.1	0.1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10.4%로 나타났으며, 월급제의 비중은 77.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4.3%), 여성(81.3%) 모두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봉제는 남성(13.3%)이 여성(6.6%)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성별로는 남성(20.6%)이 여성(1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이 32.8%로 가장 높은 반면, 건설업은 4.5%로 차이가 상당했으며, 직종별로도 사무직은 24.6%가, 전문관리직은 22.6%가 적용받는 반면, 생산직은 9.5%에 불과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은 성과급제 적용 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편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40.8%가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10인~29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2012년)

(단위 : %)

		성과급제	
		있음	없음
성 별	남 성	20.6	79.4
	여 성	11.9	88.1
산 업	농림어업	16.8	83.2
	광공업	20.0	80.0
	건설업	4.5	95.5
	전기·가스 및 수도업	21.9	78.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5	89.5
	운수통신업	24.2	75.8
	금융 및 부동산업	32.8	67.2
	공공서비스업	29.5	70.5
	기타서비스업	13.6	86.4
직 종	전문관리직	22.6	77.4
	사무직	24.6	75.4
	서비스직	15.0	85.0
	농림어업직	19.5	80.5
	생산직	9.5	90.5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5	78.5
	임시직	5.8	94.2
	일용직	1.0	99.0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9	96.1
	10~29인	7.3	92.7
	30~99인	11.7	88.3
	100~299인	23.6	76.4
	300~499인	25.5	74.5
	500인 이상	40.8	59.2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2. 월평균 임금

KLIPS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 이외에도 “현재 이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월평균 임금(세후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6-10>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지난 15년간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156만 7천원)에 비해 2차년도 조사(144만 7천원)에서 12만 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3차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1차년도에는 20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만 원 감소하였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 만 원, %)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11.1 (0.010)	156.7 (0.010)	130.9 (0.010)	184.7 (0.010)	77.5 (0.015)	109.2 (0.015)
2차년도	103.4 (0.010)	144.7 (0.010)	123.9 (0.011)	173.3 (0.011)	72.6 (0.015)	101.5 (0.015)
3차년도	109.6 (0.010)	150.0 (0.010)	131.0 (0.011)	179.2 (0.011)	76.4 (0.015)	104.6 (0.015)
4차년도	121.0 (0.011)	159.0 (0.011)	144.7 (0.013)	190.1 (0.013)	85.4 (0.015)	112.2 (0.015)
5차년도	131.9 (0.011)	168.7 (0.011)	157.6 (0.012)	201.5 (0.012)	93.8 (0.016)	120.0 (0.016)
6차년도	145.3 (0.011)	179.6 (0.011)	173.2 (0.012)	214.1 (0.012)	104.4 (0.017)	129.1 (0.017)
7차년도	159.0 (0.011)	189.8 (0.011)	190.4 (0.013)	227.2 (0.013)	112.7 (0.017)	134.5 (0.017)
8차년도	167.6 (0.011)	194.7 (0.011)	201.2 (0.013)	233.7 (0.013)	116.9 (0.017)	135.8 (0.017)
9차년도	179.1 (0.014)	203.2 (0.014)	215.2 (0.017)	244.2 (0.017)	124.5 (0.017)	141.3 (0.017)
10차년도	190.5 (0.017)	211.0 (0.017)	231.0 (0.021)	255.8 (0.021)	130.1 (0.019)	144.0 (0.019)
11차년도	194.7 (0.013)	206.1 (0.013)	235.3 (0.016)	249.0 (0.016)	135.0 (0.017)	142.9 (0.017)
12차년도	196.9 (0.012)	202.8 (0.012)	237.1 (0.014)	244.2 (0.014)	138.7 (0.018)	142.9 (0.018)
13차년도	204.8 (0.012)	204.8 (0.012)	247.3 (0.014)	247.3 (0.014)	146.4 (0.019)	146.4 (0.019)
14차년도	214.9 (0.014)	206.6 (0.014)	261.1 (0.017)	251.1 (0.017)	151.8 (0.018)	146.0 (0.018)
15차년도	222.3 (0.013)	209.1 (0.013)	270.5 (0.016)	254.5 (0.016)	160.1 (0.020)	150.6 (0.020)

주 : 1)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100)
2) 종단면 가중치 적용 전 수치임.
3)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 적용 후 변동계수(CV)임.
4)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고, 12차년도에는 202만 8천 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후 13차년도에는 204만 8천 원으로, 15차년도에는 209만 1천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금 감소 전인 10차년도 수준에 다소 못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임금삭감 등의 정책 영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15차년도에 여성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60만 1천 원으로 남성의 59.2%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임금의 변동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24]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월평균 임금액은 299만 5천 원인데, KLIPS는 222만 3천 원으로 나타난다. KLIPS에서 추정되고 있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주요하게는 조사 대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LIPS의 경우는 가구조사로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의 임금을 조사하므로 1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는 기업체 조사로 비농부문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25]의 상용근로자가 조사 대상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중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다.

<표 6-11>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별·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의 월평균 임금이 321만 8천 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200.5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 집단에서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으며, 여성의 경우도 19세 이하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임금은 교육수준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의 경우 고졸(191만 5천 원)과 비교하여 149.4%(286만 1천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반면, 고졸 미만은 고졸의 67.6%(129만 4천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4)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각호.

25)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99년 이전에는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 대상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5인 이상 자료를 수록한 『2009 KLI 노동통계』, 2009(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2012년)

(단위 :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연 령	19세 이하	91.5	104.2	80.4
	20~29세	167.1	174.1	162.5
	30~39세	243.9	268.0	200.5
	40~49세	248.2	321.8	162.8
	50~59세	242.2	304.6	146.6
	60세 이상	144.2	179.8	85.5
학 력	고졸 미만	129.4	162.1	99.1
	고졸	191.5	239.5	133.2
	전문대졸 이하	205.7	239.2	166.0
	대졸	286.1	325.5	221.0
	대학원 이상	392.9	452.1	265.2

주 :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2012년)

(단위 : 천 원)

		월평균 임금	
		평균액(천 원)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255.8	100.0
	임시직	128.5	50.2
	일용직	131.8	51.5

주 : 1) 상대임금은 상용직 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계산.
2)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에 제시되어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55만 8천 원으로 임시직은 상용직의 50.2%, 일용직은 51.5%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표 6-13>은 산업별·직종별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389만 6천 원)의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2012년)

(단위 :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산 업	농림어업	199.0	294.4	72.5
	광공업	239.7	288.9	142.3
	건설업	217.1	221.5	168.6
	전기·가스 및 수도업	389.6	454.9	157.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3.0	226.3	136.3
	운수통신업	252.1	264.2	212.3
	금융부동산업	263.4	303.7	201.3
	공공서비스업	259.8	287.7	196.4
	가사서비스업	211.0	282.4	165.0
직 종	전문관리직	282.7	350.1	203.0
	사무직	265.7	325.1	201.1
	서비스직	168.0	232.3	130.1
	농림어업직	204.6	210.3	80.0
	생산직	181.5	214.0	111.1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156.8	183.4	130.9
	10~29인	194.2	233.4	141.6
	30~99인	210.4	244.3	160.8
	100~299인	252.6	286.7	188.1
	300~499인	258.7	325.5	168.2
	500인 이상	341.6	418.3	202.1
기업형태별	민간회사	209.8	255.8	149.1
	외국인회사	360.6	389.3	295.4
	공기업	293.6	394.9	157.6
	법인단체	257.6	347.7	187.5
	정부기관	280.5	316.4	240.1
	소속이 없음	132.6	157.4	90.6
	기 타	208.6	238.3	111.7

주 :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263만 4천 원)과 공공서비스업(259만 8천 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로 차이가 큰데 남성은 전체 구성과 비슷하게 전기·가스 및 수도업, 금융 및 부동산업, 광공업 순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은 운수통신업이 212만 3천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금융·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는 광공업 월평균 임금의 71.5%(173.0만원)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은 직종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관리직의 월평균 임금은 282만 7천 원으로 사무직의 106.4%로 이들 직종 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생산직과 서비스직은 사무직의 68.3%, 6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직종에서는 사무직과의 격차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외국인 회사가 가장 높은 360만 6천 원이었고, 공기업이 그 다음이었다. 소속 없음과 기타를 제외하면 민간회사는 가장 낮은 209만 8천 원이었다.

종업원 규모별 임금수준은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가 341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5차년도부터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1~15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었던 기존의 조사 항목으로는 임금근로자용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던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및 자기 판단에 기초한 정규-비정규 여부, 근로계약 기간의 유무 등이 있다. 이외에 5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고 있는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

로) 외에 취업자용 설문 중 근로의 지속가능성 여부, 향후 지속가능 기간, 근로지속 불가능 이유,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15차년도는 10차년도 부가조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 관한 문항들이 본 설문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본 절에서는 기존 본 설문에서 조사되었던 조사 항목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용 유형을 판별하고 각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비정규직의 규모

다음의 <표 6-14>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시간제근로(31.5%)이고 다음으로 단기계약(23.8%), 일용직(17.5%)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각각 5.1%와 12.0%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준별로 살펴볼 때 KLIPS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2012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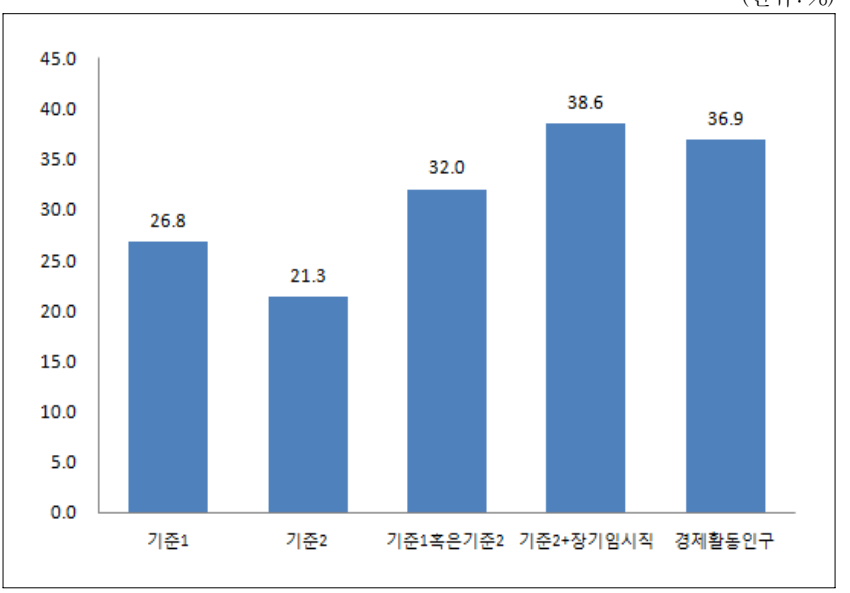
	정규직	일용대기	파 견	용 역	독립도급	가내근로	시간제	단기계약	전 체
전 체	78.7	3.7	1.1	2.6	1.7	0.4	6.7	5.1	100.0
		17.5	5.1	12.0	8.2	1.9	31.5	23.8	100.0
남 성	82.6	5.3	0.8	2.8	1.2	0.1	2.6	4.6	100.0
		30.2	4.5	16.0	7.1	0.8	15.0	26.3	100.0
여 성	73.6	1.8	1.5	2.3	2.4	0.7	12.0	5.7	100.0
		6.7	5.6	8.6	9.1	2.8	45.5	21.7	100.0

주 : 1) 각 고용형태는 개별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표에서 제시된 항목의 순서에 따라 분류된 결과임.
2) 단기계약직이란, 근속이 1년 안 된 사람들 중 향후 계속 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를 의미함.
3)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그림 6-3]에서 볼 수 있듯이, KLIPS에서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6.8%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6.9%와 비교할 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에 속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에 속하는 경우(기준1 혹은 기준2) KLIPS에서 추정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32.0%까지 증가한다. 또한 기준 2에 장기임시직을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는 38.6%로 크게 증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슷한 비정규직 규모가 추산된다. 결국 두 조사 간 조사방법상의 차이점[26]을 감안하면 양 조사에서의 비정규직 규모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3〕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2012년)

(단위 : %)



주 : 기준1은 KLIPS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기준2는 위의 고용형태별 정의를 이용. 기준2+장기임시직에서 장기임시직은 부가급여를 받는지, 사회보장혜택을 받는지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 가능한데, 여기서는 퇴직금을 받는지 여부로 통제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12년도 비농가부문 임시·일용직 비중임.

26) KLIPS에서는 각종 사회보험 및 퇴직금 가입 여부와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상여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상여금이나 각종 부가급여 제공 등을 감안하여 조사 요원이 직접 종사상 지위를 판별하여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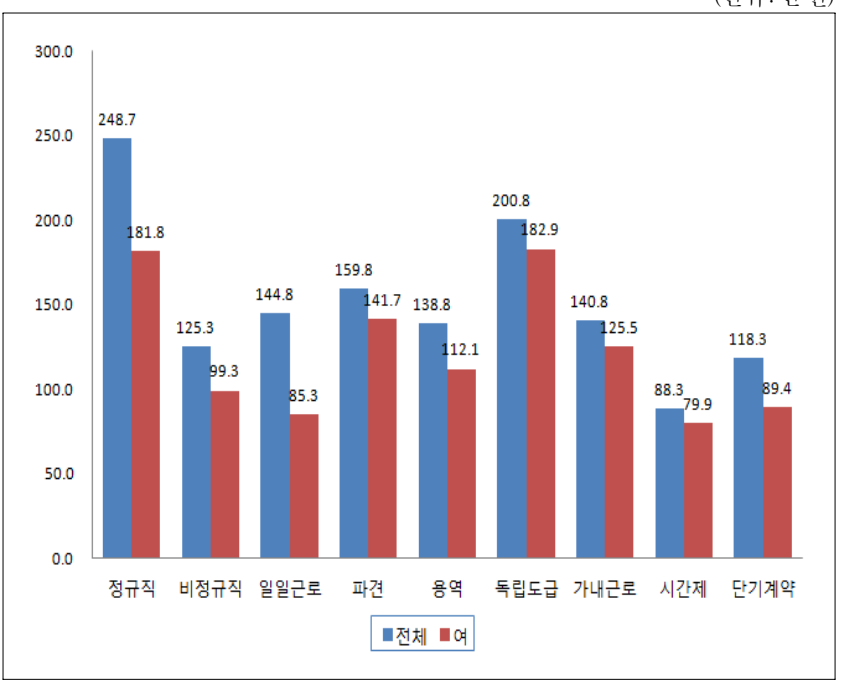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여기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한 비정규직의 조작적 정의(기준 2)를 기준으로 이들의 임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6-4]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5만 3천 원으로 정규직 근로자(248만 7천 원)의 약 50.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8,317원으로 정규직 근로자(12,774원)의 65.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도급근로일 때의 임금(200만 8천 원)은 정규직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가내근로(140만 8천 원), 용역(138만 8천 원), 일일근로(144만 8천 원), 파견(159만 8천 원)은 비정규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2년)

(단위 : 만 원)



주 : 임금수준은 명목임금임.

직의 평균 임금보다는 높지만 정규직의 56~64%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시간제(88만 3천 원), 단기계약(118만 3천 원) 등에서 더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 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주요 설문 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들이 조사되고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적자를 보는 경우 적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1~15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본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고 이후 모든 표의 수치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단위 :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 수	남성	여성	
1차년도	2,415	58.6	41.4	37.6
2차년도	2,247	59.0	41.0	36.1
3차년도	2,071	59.6	40.4	35.2
4차년도	1,984	58.8	41.2	33.5
5차년도	1,980	59.6	40.4	32.8
6차년도	2,000	59.8	40.2	31.9
7차년도	2,027	60.3	39.7	31.9
8차년도	2,125	59.1	40.9	33.8
9차년도	2,049	59.0	41.0	32.1
10차년도	2,045	59.3	40.7	31.8
11차년도	2,034	59.6	40.4	31.3
12차년도	1,999	59.1	40.9	30.9
13차년도	1,958	59.8	40.2	29.6
14차년도	1,881	60.5	39.5	28.4
15차년도	1,929	61.2	38.8	28.4

주 : '표본수'를 제외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함.

제1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이때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 이상 종업원이 있는 경우를 이르며,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를 통해 15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5.0%, 자영업자 57.1%,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21.1	56.8	22.1
2차년도	23.4	53.6	23.0
3차년도	23.3	52.8	23.9
4차년도	24.2	51.3	24.5
5차년도	25.8	50.3	23.9
6차년도	25.9	50.4	23.7
7차년도	26.6	50.6	22.8
8차년도	22.8	57.7	19.5
9차년도	23.0	57.5	19.5
10차년도	25.9	55.4	18.7
11차년도	26.7	54.2	19.1
12차년도	27.9	52.6	19.5
13차년도	28.0	53.1	18.9
14차년도	28.7	53.1	18.3
15차년도	25.0	57.1	17.9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17.9%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차년도에 22.1%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15차년도에는 17.9%를 기록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8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57.7% 달하였다가 9차년도 이후부터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늘어 15차년도에는 5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KLIPS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는 통계청의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17.9%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65.0%), 고용주(31.3%), 가족종사자(3.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자영업자(44.7%)와 무급가족종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성 별	남 성	31.3	65.0	3.7
	여 성	15.1	44.7	40.2
연 령	20~29세	21.4	60.3	18.2
	30~39세	39.3	47.6	13.1
	40~49세	27.0	55.3	17.7
	50~59세	28.0	52.9	19.1
	60세 이상	13.0	68.9	18.1
학 력	고졸 미만	10.1	64.0	25.9
	고졸	24.5	57.6	17.9
	전문대졸 이하	31.4	52.2	16.5
	대졸	46.8	46.7	6.5
	대학원 이상	32.4	61.6	6.0
산 업	농림어업	5.7	63.0	31.3
	광공업	32.8	41.3	25.9
	건설업	32.3	59.4	8.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1.2	48.2	20.5
	운수통신업	7.4	92.0	0.7
	금융 및 부동산업	23.8	69.0	7.1
	기타서비스업	31.5	56.8	11.8

주 : 1)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2)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사자(40.2%)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60대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30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고용주는 대학원 이상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별[27]

27) 산업표준분류 9차 개정

로는 광공업(32.8%)과 건설업(32.3%), 기타서비스업(31.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1.2%)에서 고용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운수통신업(92.0%), 금융 및 부동산업(69.0%), 건설업(59.4%) 순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 근로시간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사업 또는 일 자체를 '하다, 안하다'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하여서는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고 각각 조사하고 있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는 <표 7-4>와 같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74.4%, 불규칙적인 경우가 25.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계절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한 경우가(16.9%)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의 약 2배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2012년)

(단위 :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일수(일)
			계절영향 없음	계절영향 있음	
전 체		74.4	8.7	16.9	5.8
종사상 지위	고용주	93.5	3.2	3.3	5.9
	자영업자	68.1	10.8	21.1	5.7
	가족종사자	67.7	9.5	22.8	6.0
산 업	농림어업	25.7	6.2	68.0	6.0
	광공업	85.2	10.4	4.4	5.7
	건설업	57.4	9.7	32.9	5.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6.1	7.4	6.6	6.1
	운수통신업	68.3	18.2	13.6	5.0
	금융 및 부동산업	86.8	10.5	2.7	5.3
	공공서비스업	87.8	6.9	5.3	5.7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근로시간의 규칙성에 대해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고용주가 93.5%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68.1%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중이 고용주(3.3%)보다는 자영업자(21.1%)와 가족종사자(22.8%)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74.3%, 건설업 종사자의 42.6%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각각 68.0%와 3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차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평균 근로일수는 5.8일이며 종사상 지위별로 자영업자의 근로일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용주와의 차이는 평균 0.2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에는 운수통신업(5.0일), 건설업(5.1일)에서 주평균 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짧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1일, 농림어업 6.0일 순으로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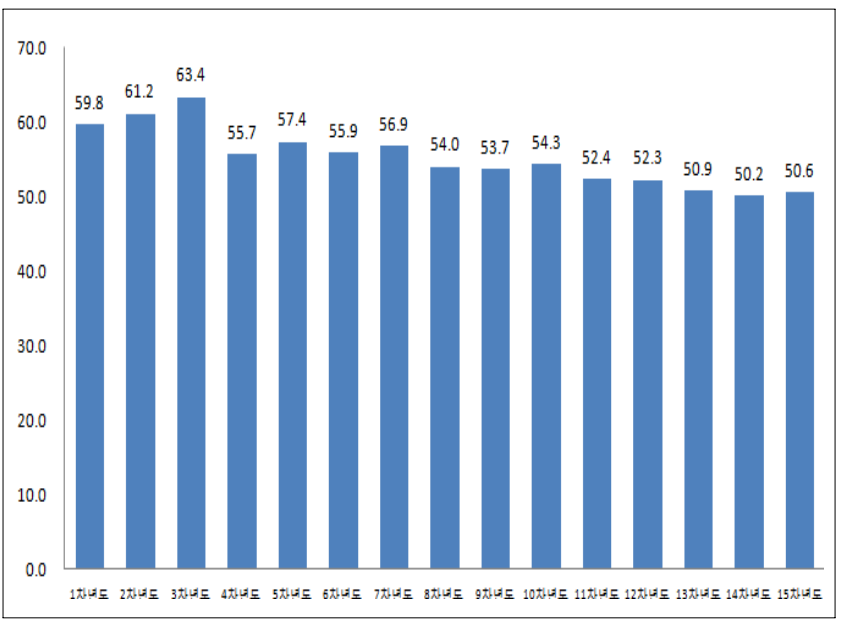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7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은 증감을 되풀이하다가 7차년도 이후 10차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1]에서 볼 수 있듯이, 1차년도에는 59.8시간이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4차년도에는 55.7시간까지 감소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57.4시간으로 1.7시간가량 증가하였고, 7차년도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15차년도에 50.6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7-5>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를 제외하면 고용주가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15차년도의 경우 고용주는 주당 평균 53.7시간, 자영업자는 49.9시간, 무급가족종사자는 48.3시간을 근로하였다.[28]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28)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68시간이라고 응답한 개인은 하루 24시간 근로를 의미하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59.8 (0.009)	58.8 (0.016)	59.8 (0.012)	60.8 (0.019)
2차년도	61.2 (0.016)	64.2 (0.035)	60.9 (0.025)	58.7 (0.019)
3차년도	63.4 (0.025)	62.5 (0.039)	64.8 (0.039)	61.1 (0.048)
4차년도	55.7 (0.010)	57.8 (0.017)	55.2 (0.014)	54.5 (0.020)
5차년도	57.4 (0.009)	58.7 (0.015)	56.7 (0.014)	57.5 (0.018)
6차년도	55.9 (0.010)	58.2 (0.017)	55.6 (0.014)	54.2 (0.021)
7차년도	56.9 (0.009)	58.6 (0.015)	56.9 (0.013)	55.0 (0.018)
8차년도	54.0 (0.009)	57.0 (0.015)	52.6 (0.013)	54.8 (0.019)
9차년도	53.7 (0.010)	54.8 (0.018)	53.2 (0.013)	54.2 (0.022)
10차년도	54.3 (0.010)	57.3 (0.015)	52.4 (0.014)	55.9 (0.021)
11차년도	52.4 (0.009)	54.6 (0.014)	51.8 (0.013)	51.1 (0.021)
12차년도	52.3 (0.010)	55.5 (0.015)	51.0 (0.014)	51.2 (0.024)
13차년도	50.9 (0.009)	54.5 (0.016)	49.5 (0.013)	49.2 (0.021)
14차년도	50.2 (0.010)	52.3 (0.015)	49.8 (0.014)	48.0 (0.026)
15차년도	50.6 (0.011)	53.7 (0.016)	49.9 (0.015)	48.3 (0.024)

주 : 1)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 적용 후 변동계수(CV)임.
2)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표 7-6>은 주당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비임금근로자의 64.3%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0.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약 45.1시간)보다 5.5시간 더 긴 수치다.

성별로 살펴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4시간가량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남성 비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47.1시간)보다 주당 4.9시간 정도 더 일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42.4시간)보다 5.8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50~59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3.9시간으로 가장 길게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2012년)

(단위 :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 체		2.6	12.8	20.4	25.2	30.4	8.6	50.6
성별	남 성	1.5	9.2	21.3	27.3	31.2	9.5	52.1
	여 성	4.1	18.5	18.9	22.1	29.3	7.1	48.2
연령	20~29세	27.8	20.7	14.0	6.0	24.8	6.8	36.9
	30~39세	3.6	5.9	17.2	36.8	27.2	9.3	51.4
	40~49세	2.0	11.4	23.0	26.0	28.8	8.7	50.5
	50~59세	0.7	7.3	19.2	26.9	36.4	9.6	53.9
	60세 이상	3.1	24.8	21.2	19.1	25.1	6.8	46.5
학력	고졸 미만	2.2	20.1	17.0	21.2	32.3	7.1	49.5
	고 졸	0.4	6.2	20.1	28.3	33.6	11.5	54.0
	전문대졸 이하	8.1	8.3	20.3	26.3	26.8	10.2	49.5
	대 졸	4.0	16.5	24.7	25.4	24.6	4.8	46.5
	대학원 이상	0.0	10.4	32.3	27.1	25.1	5.2	49.3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연령대는 36.9시간의 2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54.0시간)가 가장 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대졸'(46.5시간)의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주당 평균 7.5시간이었다.

<표 7-7>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7.7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특히 7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응답자가 이 산업에서 15.1%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1~4인 사업체의 경우가 54.5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10시간가량 짧은 44.5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2009년)

(단위 :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업	농림어업	2.5	29.1	22.9	20.0	19.3	6.1	45.3
	광공업	1.0	11.2	20.6	44.3	21.2	1.7	47.6
	건설업	0.0	10.8	29.3	44.8	14.3	0.8	46.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	7.9	10.6	19.0	46.0	15.1	57.7
	운수통신업	1.3	8.6	24.2	29.8	28.1	7.9	50.0
	금융 및 부동산업	1.1	10.3	48.0	23.0	16.8	0.8	44.3
	기타서비스업	7.1	12.8	21.7	24.1	26.7	7.6	47.4
종업원 규모	1~4인	0.6	8.3	13.3	30.6	34.8	12.3	54.5
	5~9인	0.0	4.0	40.8	31.2	11.9	12.0	48.7
	10인 이상	0.0	5.1	45.5	41.8	6.9	0.7	44.5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제3절 근로소득

<표 7-8>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난 15년간 월평균 명목소득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 131만 6천 원에서 2차년도에 128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8차년도와 10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는데 15차년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15차년도에는 29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보고되는 비임금근로자, 즉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2차년도뿐 아니라 6차년도와 8차년도에 이어 10차년도~12차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13차년도부터는 다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세는 크지 않아 가장 소득이 높았던 7차년도 수준보다 여전히 12만 원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8〉 월평균 소득 비교

(단위 :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31.6 (0.026)	185.6 (0.026)	148.1 (0.030)	208.9 (0.030)	87.8 (0.042)	123.9 (0.042)
2차년도	128.0 (0.023)	179.0 (0.023)	142.4 (0.026)	199.2 (0.026)	84.0 (0.042)	117.5 (0.042)
3차년도	144.6 (0.026)	197.8 (0.026)	161.0 (0.028)	220.2 (0.028)	94.8 (0.060)	129.6 (0.060)
4차년도	180.2 (0.050)	236.8 (0.050)	202.5 (0.058)	266.1 (0.058)	118.0 (0.071)	155.1 (0.071)
5차년도	207.2 (0.038)	265.0 (0.038)	229.4 (0.043)	293.3 (0.043)	140.9 (0.081)	180.2 (0.081)
6차년도	213.4 (0.037)	263.8 (0.037)	238.1 (0.042)	294.4 (0.042)	144.0 (0.066)	178.0 (0.066)
7차년도	238.6 (0.047)	284.8 (0.047)	268.4 (0.053)	320.3 (0.053)	149.3 (0.068)	178.2 (0.068)
8차년도	222.3 (0.073)	258.2 (0.073)	252.7 (0.088)	293.5 (0.088)	149.1 (0.079)	173.2 (0.079)
9차년도	245.2 (0.070)	278.4 (0.070)	277.8 (0.086)	315.3 (0.086)	167.4 (0.062)	190.0 (0.062)
10차년도	244.1 (0.032)	270.3 (0.032)	276.0 (0.036)	305.6 (0.036)	167.9 (0.057)	185.9 (0.057)
11차년도	256.2 (0.030)	271.1 (0.030)	282.1 (0.035)	298.5 (0.035)	194.3 (0.055)	205.6 (0.055)
12차년도	257.4 (0.034)	265.1 (0.034)	286.2 (0.040)	294.7 (0.040)	190.8 (0.059)	196.5 (0.059)
13차년도	270.0 (0.032)	270.0 (0.032)	296.1 (0.037)	296.1 (0.037)	207.1 (0.058)	207.1 (0.058)
14차년도	283.6 (0.034)	272.7 (0.034)	314.4 (0.040)	302.3 (0.040)	206.6 (0.051)	198.7 (0.051)
15차년도	290.0 (0.034)	272.8 (0.034)	323.6 (0.039)	304.4 (0.039)	204.7 (0.056)	192.6 (0.056)

주 : 1)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100).
2)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3)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4)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월평균 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간 소득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15차년도의 여성 월평균 명목소득은 204만 7천 원으로 남성(323만 6천 원)의 63.3% 수준에 그치고 있고, 13차년도 이후 여성의 명목 및 실질임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남성은 꾸준히 증가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령별 월평균 소득액을 보면 40대에서 정점에 달해 351만 원으로 나타난다. 근로소득이 300만 원 이상에 분포하는 사람은 40대가 57.8%로 가장 많았고, 30대(49.5%)와 50대(41.8%)도 300만 원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2012년)

(단위 : %, 만 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 원)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 체		2.6	16.0	19.6	21.6	40.1	290.0
연 령	20~29세	6.0	39.1	14.3	18.6	21.9	182.4
	30~39세	1.9	9.0	15.0	24.7	49.5	323.8
	40~49세	1.9	5.4	15.5	19.4	57.8	351.0
	50~59세	2.3	9.2	20.3	26.3	41.8	313.4
	60세 이상	3.7	38.7	25.7	16.0	16.0	181.7
학 력	고졸 미만	2.3	33.1	28.3	18.3	18.0	183.1
	고 졸	2.0	8.5	20.8	27.3	41.4	289.4
	전문대졸 이하	3.9	12.9	12.7	25.2	45.3	302.9
	대졸 이하	2.2	8.0	12.1	15.3	62.3	410.9
	대학원 이상	8.6	9.4	6.3	14.3	61.5	432.1

주 : 1)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이상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반면 20대(39.1%)와 60대(38.7%)의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 및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300만 원 이상에 62.3%가 위치하고 있는 반면, 고졸 미만은 단지 18.0%만이 300만 원 이상에 분포하고 있었다.

<표 7-10>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 사업체 특성 및 매출액 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447만 9천 원)이 가장 높고, 금융 및 부동산업(364만 2천 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적은 월평균 소득을 보이는 산업은 농림어업과 운수통신업으로 각각 145만 3천 원, 233만 5천 원으로 특히 농림어업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2012년)

(단위 : %, 만 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 원)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산 업	농림어업	5.7	46.9	17.6	13.9	15.9	145.3
	광공업	6.8	10.7	17.1	19.3	46.0	348.5
	건설업	2.2	1.9	13.7	26.9	55.3	447.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	14.3	17.7	24.3	42.3	294.5
	운수통신업	2.1	3.0	33.7	32.8	28.3	233.5
	금융 및 부동산업	2.3	7.7	18.2	23.8	48.1	364.2
	기타서비스업	1.1	15.1	20.0	15.7	48.2	306.7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2.2	21.8	25.0	22.4	28.6	214.7
	1~4인	3.3	3.2	8.5	24.0	61.0	437.3
	5~9인	5.6	3.4	3.8	7.9	79.3	485.7
	10인 이상	2.0	4.3	93.7	0.0	0.0	652.5

주 : 1)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분야 종사자의 월소득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가 0(자영업자)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214만 7천 원이고, 사업체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652만 5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8차년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적자액의 규모는 <표 7-11>에서 알 수 있다. 15차년도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6%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고, 적자액의 평균은 282만 7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범주별로는 100만 원 미만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은 32.7%, 다음으로 3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응답이 32.6%로 조사됐다.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2012년)

(단위 : %, 만 원)

월평균 적자의 분포						월평균 적자액 (만 원)
적자 아님	적자임	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97.4	2.6	32.7	19.0	15.7	32.6	282.7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제4절 사업체의 창업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44명으로 조사되었으며,[29] 이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체의 창업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7-12>를 통해 창업 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8.0%)보다는 88.0%가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의 경우가 자영업자보다 창업 비율이 다소 더 높았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한 응답자가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표 7-13>을 통해 보면, 응답 대상자의 81.1%가 본인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2012년)

(단위 :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 업	88.0	89.8	87.2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8.0	5.8	9.1
기 타	4.0	4.5	3.7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29)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2012년)

(단위 :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 친지	81.1	70.6	87.2
동업자	2.9	4.3	2.0
은행 등의 융자	12.7	21.6	7.6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2.0	3.1	1.3
사채업자	0.0	0.0	0.0
정부의 보조	0.0	0.0	0.0
기 타	0.2	0.5	0.0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또는 가족 · 친지를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는 거의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 친지에 의한 자본금 조달 비중이 70.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가 2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방식은 고용주와 비슷하나 본인 및 가족 · 친지를 통한 조달이 16.5%가 더 많고, 상대적으로 은행 등의 융자 비중은 13.9%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8 장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제8장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얻는 자료이므로 동일한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시간에 걸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패널자료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 다른 자료들과 구분되는 패널자료의 장점이다.[30] 노동시장 분석은 특히 동태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패널자료의 이와 같은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8장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제13, 14, 15차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표 8-1>은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값들은 흔히 이행확률들로 언급되고 있으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원래의 확률에 100을 곱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행확률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4차년도에 취업상태에 있던 100명 가운데 다음 기인 15차년도에도 취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는 92.8명이고, 반면 실업으로 옮겨간 사람 수는 1.4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간 사람의 수는 5.8명이다. 이를 확률로 해석해도 좋다. 즉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

30) 횡단면 자료에서 회고적 조사를 통해 패널조사와 유사한 추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고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회고 기간이 길수록 회고 오차 문제도 더욱 커지므로 종단분석에 사용하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8-1〉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

이전 상태	이후 상태	13차→14차	14차→15차
취업	취업	92.5	92.8
	실업	1.3	1.4
	비경제활동	6.2	5.8
실업	취업	53.1	51.8
	실업	21.2	14.2
	비경제활동	25.6	34.0
비경제활동	취업	10.4	10.4
	실업	1.6	1.8
	비경제활동	88.0	87.8

주 : 13차→14차 계산에는 13차 종단면 가중치를, 14차→15차 계산에는 14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행확률은 1.4%이고 취업지속확률은 92.8%이다.

표에서 보듯이, 취업상태에서 다른 노동력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13→14차와 14→15차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전기에 취업에서 이번 기에 취업으로 이동한 사람은 13→14차 92.5%, 14→15차 92.8%였다.

실업에서 실업,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두 기간 간 차이가 보인다. 이를테면, 전기에 실업이었고 이번 기에도 실업인 사람은 13→14차 21.2%였으나 14→15차 14.2%로 감소했다. 하지만 실업자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취업이 어려워 실업→실업 이동이 줄고 실업→비경활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이라면, 취업→취업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비경제활동은 증가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변화는 13→14차와 14→15차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에서 보듯이 비경활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은 14→15차 기준 10.4로 전기와 같고, 실업으로의 이동 역시 1.8로서 전기의 1.6과 별반 다르지 않다. 비경활동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87.8로 전기보다 0.2 줄었다.

이제 이러한 경제활동상태에서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8-2>는 이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은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에 있어 매우 구분되는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즉 취업상태에서의 변화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남성의 경우에 비해 낮은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14차→15차의 경우 95.1인데 여성의 경우는 89.4였다.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동은 여성의 경우 9.0으로서 남성 3.6의 두 배를 넘는다.

〈표 8-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

	이전 상태	이후 상태	13차→14차	14차→15차
남성	취업	취업	94.7	95.1
		실업	1.6	1.3
		비경제활동	3.7	3.6
	실업	취업	61.4	49.5
		실업	22.4	17.7
		비경제활동	16.2	32.8
	비경제활동	취업	11.0	12.1
		실업	2.6	3.1
		비경제활동	86.4	84.8
여성	취업	취업	89.2	89.4
		실업	0.9	1.6
		비경제활동	9.9	9.0
	실업	취업	41.8	55.9
		실업	19.7	8.1
		비경제활동	38.5	36.0
	비경제활동	취업	10.2	9.6
		실업	1.1	1.1
		비경제활동	88.8	89.3

주 : 13차→14차 계산에는 13차 종단면 가중치를, 14차→15차 계산에는 14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실업상태에서의 변화를 보면, 여성의 경우 실업에서 비경활로의 이행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에서 보듯이 14차→15차에서 여성의 실업에서 비경활로의 이동은 36.0으로서 남성의 32.8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실업상태에 있는 표본 수가 적어 실업에서 다른 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는 경향도 남성보다 다소 더 크게 나타난다. 표에서 보듯이 여성의 비경제활동 지속 경향은 14→15차 기준 89.3으로서 남성의 84.8보다 다소 높아 여성은 비경활에 계속 머무는 경향이 남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경활상태에 있는 여성의 취업 이행률은 9.6으로 남성의 12.1보다 낮다.

이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자. <표 8-3>은 이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실업과 관련된 이행률 변화가 상당히 급격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노동패널의 표본 규모가 크지 않아 실업자로 포착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지 않고, 이를 연령 등으로 쪼개면 더욱 개별 조건에 맞는 표본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를 감안해 여기서는 따로 실업으로부터의 이동을 설명하지는 않겠다.

연령집단별로 이행률을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취업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40대에서 가장 높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14→15차 기준 85.9로 가장 낮다. 반면 40대가 취업상태에서 계속 머물 확률은 96.4로 높다. 30대와 50대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각각 94.2과 93.1로 40대에 근접할 정도로 높다. 60세 이상에서는 89.2로 20대 청년보다 다소 높은 취업지속률을 유지한다. 이러한 특징은 13→14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던 특성이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20대의 경우 이 이행률이 14→15차의 경우 76.0인 반면, 30대 83.1, 40대 81.2, 50대 86.0,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94.3이다. 청년의 비경활 지속확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경제활동상태로 쉽사리 옮겨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20대가 비경활에서 취업

〈표 8-3〉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

	이전 상태	이후 상태	13차→14차	14차→15차
20대	취업	취업	87.7	85.9
		실업	1.9	2.7
		비경제활동	10.4	11.4
	실업	취업	56.2	48.7
		실업	24.0	18.8
		비경제활동	19.8	32.5
	비경제활동	취업	19.9	20.2
		실업	4.9	3.8
		비경제활동	75.1	76.0
30대	취업	취업	92.2	94.2
		실업	1.6	1.5
		비경제활동	6.2	4.3
	실업	취업	63.4	59.7
		실업	14.4	13.1
		비경제활동	22.1	27.2
	비경제활동	취업	16.9	14.4
		실업	2.4	2.5
		비경제활동	80.7	83.1
40대	취업	취업	95.6	96.4
		실업	1.1	1.2
		비경제활동	3.3	2.5
	실업	취업	57.0	59.7
		실업	28.5	5.2
		비경제활동	14.5	35.1
	비경제활동	취업	15.9	14.5
		실업	1.5	4.3
		비경제활동	82.7	81.2
50대	취업	취업	93.7	93.1
		실업	0.9	1.3
		비경제활동	5.4	5.6
	실업	취업	47.7	51.5
		실업	15.4	23.3
		비경제활동	36.9	25.2
	비경제활동	취업	12.0	13.1
		실업	1.2	0.9
		비경제활동	86.8	86.0

〈표 8-3〉의 계속

	이전 상태	이후 상태	13차→14차	14차→15차
60세 이상	취업	취업	88.5	89.2
		실업	1.3	0.8
		비경제활동	10.2	10.0
	실업	취업	21.3	36.3
		실업	22.8	2.1
		비경제활동	55.9	61.6
	비경제활동	취업	3.8	4.9
		실업	0.6	0.8
		비경제활동	95.7	94.3

주 : 13차→14차 계산에는 13차 종단면 가중치를, 14차→15차 계산에는 14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으로 이행할 가능성은 14→15차의 경우 20.2로 가장 크고,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 가능성은 낮아져 60세 이상의 경우 4.9에 불과하다.

연령대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0대 청년 노동시장이 매우 역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활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른 노동력 상태로 손쉽게 이동하고 있어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표 8-4>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시간에 걸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학력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14→15차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지속 가능성이 높았다. 중졸 이하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0.7명이나 고졸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2.3명이고, 전문대졸의 경우 93.5명, 대졸 이상 학력집단의 경우 94.8명으로 나타났다.

실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결과 수치가 매우 크게 변동하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다. 비경제활동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확률은 14→15차 기준 중졸 이하에서 94.2로 높고 나머지 학력집단들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고졸의 경우 83.2, 전문대졸의 경우 80.5, 그리고 대졸 이상의 경우 81.8로 나타났다.

〈표 8-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

	이전 상태	이후 상태	13차→14차	14차→15차
중졸 이하	취업	취업	91.5	90.7
		실업	0.9	1.1
		비경제활동	7.6	8.3
	실업	취업	56.3	43.7
		실업	8.1	0.0
		비경제활동	35.7	56.3
	비경제활동	취업	5.4	5.1
		실업	0.5	0.7
		비경제활동	94.1	94.2
고졸	취업	취업	92.2	92.3
		실업	1.3	1.6
		비경제활동	6.5	6.1
	실업	취업	47.9	39.5
		실업	24.6	17.5
		비경제활동	27.5	43.1
	비경제활동	취업	14.8	14.2
		실업	2.4	2.5
		비경제활동	82.8	83.2
전문대졸	취업	취업	91.7	93.5
		실업	1.3	1.9
		비경제활동	7.1	4.5
	실업	취업	63.6	66.0
		실업	31.5	10.7
		비경제활동	4.9	23.3
	비경제활동	취업	21.1	17.5
		실업	2.2	2.0
		비경제활동	76.7	80.5
대졸 이상	취업	취업	94.0	94.8
		실업	1.7	1.3
		비경제활동	4.3	4.0
	실업	취업	48.5	63.8
		실업	14.0	18.0
		비경제활동	37.4	18.1
	비경제활동	취업	11.8	14.8
		실업	2.6	3.3
		비경제활동	85.6	81.8

주 : 13차→14차 계산에는 13차 종단면 가중치를, 14차→15차 계산에는 14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 이행률은 중졸 이하의 경우 5.1에 불과하나, 고졸의 경우 14.2로 크게 높아지며,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경우도 각각 17.5와 14.8로 높게 나타났다.

◈ 執筆陣

• 이상호(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지은(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윤미례(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이혜정(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박 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제15차(201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발행연월일	2014년 10월 20일 인쇄 2014년 10월 24일 발행
▪ 발 행 인	이 인 재
▪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대표 (02) 3775-5514 Fax (02) 3775-0697
▪ 조판・인쇄	거목정보산업(주) (02) 2164-3232
▪ 등 록 일 자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제13-155호

ISBN 978-89-7356-025-7 정가 7,000원